

**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保全)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YWCA 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20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한국YWCA의 전국 회원YWCA 가족**

<b>가</b>	<b>다</b>	서울 02,3705,6000	울산 052,247,3520	천안 041,575,0961
강릉 033,651,1385	대구 053,652,0070	서천 041,951,6400	원주 033,742,6090	청주 043,265,3700
거제 055,682,4950	대전 042,254,3035	성남 031,708,2503	의정부 031,853,6332	춘천 033,254,4878
경주 054,772,8141	동해 033,531,3007	세종 044,865,2432	익산 063,857,8910	충주 043,848,3240
고양 031,919,4040	<b>마</b>	속초 033,635,3523	<b>자</b>	<b>타</b>
광명 02,895,1966	마산 055,246,8746	수원 031,252,5111	전주 063,224,5501	통영 055,646,2547
광양 061,762,0012	목포 061,242,1611	순천 061,744,7990	제주 064,711,8322	<b>파</b>
광주 062,609,1300	<b>바</b>	<b>아</b>	제천 043,645,2580	파주 031,945,5998
김해 055,332,6000	부산 051,441,2221	안동 054,854,5482	진주 055,755,3463	평택 031,651,7701
<b>나</b>	부천 032,668,9700	안산 031,483,6536	진해 055,542,0020	포항 054,274,4444
남양주 031,577,7762	<b>사</b>	안양 031,455,2700	<b>차</b>	<b>하</b>
남원 063,632,7002	사천 055,833,2344	양산 055,367,1144	창원 055,283,9488	하남 031,793,7771
논산 041,736,7393	서귀포 064,762,1400	여수 061,654,2161		

# 한국 YWCA

2016년 6월호  
 June  
 Vol.531

**이달의 생각**

남북이 진정한 화해에 이르는 길

**기획**

"YWCA 평화통일운동"

**성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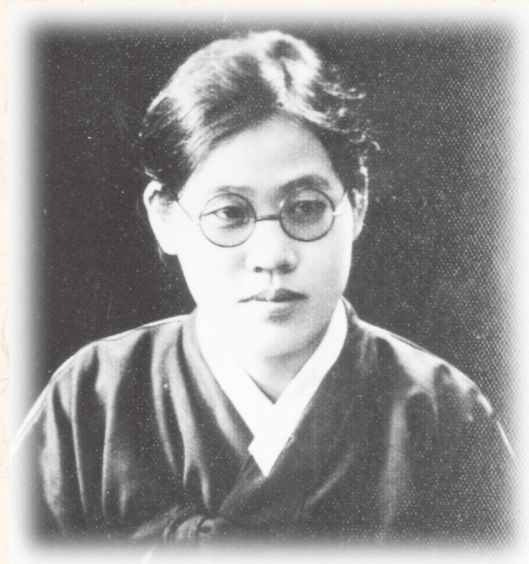
남녀임금 격차 해소는 모두를 위한 이득

**이달의 현장①**

유엔NGO컨퍼런스 YWCA 워크숍



## 충성하는 삶, 방신영 제2대 회장 (1922~1923)



방신영(1890~1977)은 교육자, 과학자, 요리연구가이자 여성운동가였다. 방신영이 집필한 한국 최초의 근대 요리책인 <조선요리제법>은 어머니에게 전수받은 조선음식 조리법을 정리한 책이다.

방신영은 수피아여학교, 정신여학교, 경성여자상업학교 등에서 교편을 잡았다. 1920년 이화여자전문학교 가사과가 창설되어 교수로 부임해 23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여성교육에 관심을 기울였다. 1920년 구성된 조선여자교육회 총무로 활동하며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이나 금전이 아닌 충성이며,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에게 충성하는 삶”을 강조했다. 여성교육에 대한 관심은 1921년 여자야학회 설립으로 이어졌다.

방신영은 여성교육뿐 아니라 여성운동에도 활발하게 참여했다. 1922년에는 김활란, 김필례, 유각경 등과 함께 YWCA 설립을 위해 여자하령회를 조직하고 강습회를 열었다. 1927년에는 가난한 부녀자를 위한 직업교육을 시작했다. ‘조선의 살림살이에 적당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여성들의 생활 향상을 도모했다. <음식관리법>, <다른나라 음식 만드는 법>,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등을 펴냈다.

## 2016. 6 한국YWCA



### 표지이야기

‘전쟁 없는 한반도’를 꿈꾸며 5월 28일(토) 2016여성평화걷기에 참가했습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 평화가 이뤄지길 소망합니다. <2016여성평화걷기 조직위원회 제공>

### 2016년 6월~7월 한국YWCA 주요일정

- 6월 16일 어린이집 원장 연구모임(~17일)
- 6월 21일 제2차 전국사무총장협의회(~23일)
- 6월 24일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시설장 모임
- 6월 27일 제3차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운영위원회(~28일)
- 6월 30일 지역에너지 전환과 자립을 위한 YWCA 에너지정책 워크숍
- 7월 1일 2016 사회적기업 주간행사(~3일)

### 제52권 제5호 통권 531호

2016년 6월 20일 발행 (등록번호 라-746)

발행 (사)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이명혜 | 편집인 유성희

홍보출판위원회 백수경 · 백혜진 · 신선 · 정민 · 정선경

조한나 · 이경순 · 최수경 · 황혜숙

편집 박은실 · 신미희 · 전하예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길 73 한국YWCA연합회

전화 02)774-0230 |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www.ywc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ywcaorea

구독료 연간 2만원 (총 10권)

계좌번호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 목 차

- 04 **이달의 생각** 남북이 진정한 화해에 이르는 길 | 장미란
- 05 **말씀 묵상** 탐욕이 다수결인 시대 | 이숙진
- 06 **이달의 이슈** 평화는 총구 아닌 신뢰에서 나온다 | 문정인
- “YWCA 평화통일운동”**
- 09 **기획①** 전쟁이 사라지는 날까지 평화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다 | 편집실
- 12 **기획②** 희생자에서 변화주도자로 나서는 세계 여성들 | 편집실
- 14 **성 평등** 남녀임금 격차 해소는 모두를 위한 이득 | 편집실
- 17 **칼럼** 한국인 원폭피해자와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 | 강제숙
- 19 **이달의 현장①** 유엔NGO컨퍼런스 YWCA 워크숍 | 편집실
- 22 **이달의 현장②** 성남YWCA 돌봄과살림협동조합 창립 | 홍성애
- 24 **이달의 현장③** 대전YWCA 창립 70주년 기념식과 후원음악회 | 이다정
- 26 **이달의 현장④** 2016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캠페인 | 편집실
- 28 **원로에게 듣는다** 박춘자 목포YWCA 명예이사를 만나다 | 편집실
- 30 **회원YWCA 활동현장을 찾아서** 부산YWCA 햇빛모아발전소 1호 건립 | 성인심
- 32 **청년** 거제대Y 동아리 시작을 위한 발걸음 | 배유미
- 34 **크리스천의 눈으로 보는 문화** 주목할 만한 기독교 영화 | 편집실
- 36 **연합회 소식**
- 40 **회원YWCA 소식**
- 48 **6월의 한국YWCA**

## 남북이 진정한 화해에 이르는 길



장미란 한국YWCA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남루하고 지친 모습으로 간단한 살림살이를 등에 지거나 머리에 이고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남쪽으로 걸어 내려가던 사람들. 폭탄을 맞아 쓰러진 부모 옆에서 울고 있는 아이들...


숲이 풍성해지는 6월은 6·25전쟁의 기억을 되살리는 뼈아픈 달이기도 하다. 남자들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고 여자들은 후방에서 아이들을 보살피며 불안하고 힘겨운 삶을 이어가야 했다.

천안함 피침, 연평도 포격, 핵무장 등은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게 한다. 전쟁 위협의 상황에서는 미래를 위한 안정된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 전쟁 위협이 사라진 평화의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남북이 서로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조약과 협정을 맺어도 서로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데 왜 믿지 못하는가?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북한을 믿지 못하는 완고한 마음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이 우리와 북한을 가르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되고 있다. 이런 담벼락을 하나하나 허물지 않고는 어떤 화해의 제스처도 협력의 시도도 지속성을 갖지 못한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거 봐라. 저들은 안 돼”라는 말이 기다렸다는 듯이 튀어나온다.

그렇다면 진정한 평화를 만들기 위한 마음가짐은 어떤 것일까? 굳어진 마음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우리들 머릿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해진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들을 하나하나 질문해보아야 한다. 북한은 왜 그런 행동을 해왔고 또 계속 하고 있는지, 왜 그들은 우리를 못 믿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를 믿고 안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진정한 화해는 정말 동등한 동반자의 관계로 그들과 마주하는 마음의 자세에서 생겨난다. 우리가 화해와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그들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물론 북한 쪽에서도 우리를 진심으로 이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화해야말로 진정한 화해다.

YWCA는 오래 전부터 화해와 평화의 길을 닦아왔다. 30년 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운동을 시작한 이후 많은 사업을 통해 평화·통일운동을 계속해왔다. 그런 YWCA이기에 남북관계가 경색된 어려운 상황일수록 한반도 평화를 위한 본격적인 일꾼으로 나서야 한다. 녹음이 짙어가는 6월, 남북의 닫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마음 깊이 눈물을 흘리며 조건 없이 서로 끌어안는 아름다운 역사의 그 순간을 상상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YWCA에게 주어진 평화의 길을 걸어가야겠다. 

## 탐욕이 다수결인 시대

출애굽기 20장 17절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신명기 5장 21절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네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숙진 이화여대 초빙교수, 신학박사

두 본문 다 무엇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데 탐내지 말아야 하는 대상이 조금 다르다. 아내까지도 소유물로 여겼던 고대 이스라엘 사회를 염두에 둔다면, 열 번째 계명은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는 탐내지 말라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열 번째 계명은 ‘행위’나 ‘마음’ 둘 중 하나의 문제라기보다 마음에서부터 행동으로 이어지는 탐욕의 동기와 실행의 과정 전체를 문제 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성서는 왜 이렇게 탐욕을 금기시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많은 율법 조항 중에 탐욕을 금기하는 조항을 빼내어 십계명 중 하나로 만들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지금 강력한 대중문화의 트렌드는 먹방과 쿡방이다. TV 속의 먹방(먹는 방송)에 열광하고, 쿡방(cook+방송) 레시피를 따라하며, 방송으로 소개된 맛집을 순례한 후기는 블로그의 꽃이다. 요리사는 최고의 엔터테이너가 되었고, 창업하는 명퇴자들의 84% 이상이 요식업(2012년 통계)에 쏠리면서 식탐문화는 날개를 달고 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잘못된 것일까?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입고 먹고 마시고 쓰는데 문제가 있나? 그렇다. 분명 문제가 있다. 유엔 식량조사관이었던 장 지글러

에 따르면, 지금 지구에서는 120억 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생산된다고 한다. 현재 세계인구는 90억이 되지 않는다. 30억 명이 더 먹을 식량이 남아 있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는다. 지금 인류의 사망 원인의 1/4은 기아다. 누군가의 탐욕은 반드시 누군가의 고통을 낳는다.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이라는 YWCA 슬로건이 명시하듯 YWCA 운동은 창조질서가 보전(保全)되는 세상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전대미문의 소비생활로 인해 우리가 사는 사회는 정의와 평화, 그리고 생명존중이라는 이상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만 가고 있다. 누군가 말했듯이 우리는 ‘오늘’ 소비할 수 있는 자유를 중시한 나머지, ‘내일’의 후손이 누려야 하는 자유에 대해서는 망각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믿는다. 우리가 참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탐욕은 지구 이웃의 소유를, 생명을 착취하는 것에서만 멈추지 않을 것이다. 탐욕은 탐욕을 부리는 자를 파괴한다는 옛말이 있다. 손에 닿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는 황홀한 기적이 결국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재앙이었던 미다스의 탐욕처럼 말이다. 

# 평화는 총구 아닌 신뢰에서 나온다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평화란 무엇인가? 평화는 실제적으로 잡히지 않는 어려운 개념이지만 평화학의 창시자인 요한 갈통은 평화를 적극적인 평화(Positive Peace)와 소극적인 평화(Negative Peace)로 나눈다.

적극적인 평화는 전쟁의 구조적인 원인 자체를 제거하여 영원히 안심할 수 있는 이상향의 달성을 추구한다. 소극적인 평화는 분쟁의 발발을 억제하고 전쟁을 방지하며 일상적인 평화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평화 운동가는 적극적인 평화를 목표로 하는데 비하여, 국가나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가의 입장에서는 갈등은 피할 수 없으므로 소극적인 평화를 잘 관리하는 것을 평화의 참 모습으로 본다.

평화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평화를 이루기 위한 단계적 접근에는 세 가지가 있다. ‘평화 유지(peace-keeping)’와 ‘평화 만들기(peace-making)’, ‘평화의 구조화(peace-building)’가 그것이다. ‘평화 유지’는 전형적인 소극적 평화의 확보 개념으로 군사력을 통한 도발의 억제를 의미한다. 전통적인 군사 ‘억지(deterrence)’와 동맹 강화가 이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예를 들면 신생국 간에 발생한 내전을 종식하고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소극적 평화의 관리 방법이다.

## ‘평화의 구조화’를 목표로 해야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의 책 제목이기도 한 ‘평화 만들기’는 이보다 한 단계 위의 개념이다. 분쟁 당사자 간의 신뢰구축을 통해 투명성을 제공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평화 만들기의 핵심이 된다. 경제, 사회, 정치적 신뢰구축의 단계를 거쳐 군사적 신뢰구축이 있어야 평화 만들기가 가능하다.

군사훈련을 할 때 상호 통보하고 참관을 허락하거나, 핫라인(직통 전화)을 개설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위기관리센터 공동설치 등으로 나타난다. 나아가 공세적 무기의 후방 배치와 새로운 첨단무기의 수입 금지를 포함한 군비통제나 감축, 그리고 평화협정 등도 ‘평화 만들기’의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넓게 보면 ‘평화 만들기’ 또한 불안



2016여성평화걷기에서 시민들이 DMZ를 걷고 있다.

정한 상황을 관리한다는 면에서 소극적인 평화의 유 지책으로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지향하여야 할 바는 ‘평화의 구조화(Peace Building)’다. 이는 분쟁의 구조적 원인을 없애는 것이다. 적대적 쌍방이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거나 우호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해당한다.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그의 저서 <영구 평화론 (Perpetual Peace)>에서 평화의 구조화와 관련하여 세 가지를 지적한 바 있다.

첫째로는 자본주의 평화론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무역에서 손실이 발생하므로 무역을 하는 국가 간에는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공화정 국가 사이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른바 ‘민주평화론’이다. 민주주의 국가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도자의 자의적인 전쟁 선포를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음으로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라는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에서는 전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세계 평화 연방’을 설립할 수 있을 것이고 집단 안전보장 체제를 통해 영구적인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칸트의 설명이다.

## ‘평화 만들기’ 합의, 선언의 무력화

한반도 맥락에서 자주 거론되는 개념은 평화체제(peace regime)다. 여기서 ‘체제’, 즉 레짐(Regime)의 어원은 요리법·처방을 뜻하는 ‘레서피(recipe)’다. 프랑스 대혁명 이전과 이후를 앙시앵 레짐(구체제)과 누보 레짐(신체제)으로 나누듯 레짐은 헌법을 기준으로 구분될 수 있다.

헌법이란 것은 통치와 관련된 규범과 원칙, 규칙을 모아놓은 것이다. 헌법이 바뀌면 체제가 바뀌고 권력의 소재에 대한 규정이 달라진다. 4공, 5공 등 한국 현대사를 봐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한반도 평화체제는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만들며 구조화하는 일련의 원칙, 규범, 규칙, 절차로 정의내릴 수 있다.

기존의 한반도 평화체제를 그 유형별로 분석하면 조약, 협정, 합의서, 선언, 성명, 공동보도문 등의 형태로 나눌 수 있다. 국가와 국가 간의 가장 높은 수준의 합의인 조약의 예로는 ‘한·미 상호방위조약’(1953.10.1)이 있다.

협정으로는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있고 합의서로는 2.13합의, 제네바합의, 남북기본합의서 등이 있다. 선언에는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 한반도 비핵화

에 관한 공동선언(1992.1.20) 등이 있으며, 2005년 제 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이나 7.4남북공동성명 등은 성명에 속한다.

이를 돌아보면 조약은 주로 평화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동맹을 구축함으로써 지금 현상을 유지하려는 '평화 유지'에 초점을 둔 것임을 알 수 있다. '평화 만들기'에 해당하는 발전적 의미가 있는 내용은 주로 합의나 선언에서 나왔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로켓 발사 이후 박근혜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군사력 확보를 평화체제 구축의 기본 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평화 만들기'나 '평화 구조화'가 아닌 '평화 유지'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 정권이 남북기본합의서나 6.15 공동선언, 10.4공동선언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더 나아가 국제 공조를 통해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 북한을 '평화적으로' 흡수통일 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 신뢰에서 생기는 안심은 평화의 본질**

평화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은 신뢰이다. 거기에서 생겨나는 안심(安心)의 상태가 평화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이 모두 잘 먹고 잘 살고 서로 비슷해져서 다들 일이 없으면 평화가 온다. 북한의 개혁개방도 먼저 북한 지도부가 안심을 느껴야 가능하다. 중국이 개혁·개방에 들어간 것은 1979년 미중 국교 정상화 이후다.

강력한 압박과 제재로 북한 체제가 붕괴하길 바라는 것은 망상이다. 북한이 스스로 문을 열어 개방할 수 있도록 판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므로 북한과 미국이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따라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보다 북미수교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 만들기의 첩경이


라 할 수 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남북기본합의서처럼 좋은 문건이 없다. 이행이 안 돼서 그렇지 헬싱키협약의 주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물론 6.15 공동선언, 10.4공동선언을 이행하면 남북 간에는 평화에 관한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

그리고 남북간, 북미간 적대관계가 이런 방식으로 해소되면 정전협정은 사실상 사문화된다. 이를 아우르는 큰 틀에서 동북아시아의 안보체제가 구축되어야 하고 여기서 북핵문제가 병행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이어서 북일 국교정상화도 평양선언에 따라 하던 된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과 북한의 핵 관련 행보는 한반도 안보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우리는 실종된 평화 담론을 부활시키는데 앞장서야 한다. 민간차원의 교류까지 가로막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풍토는 오히려 평화를 향한 대화의 싹 조차 잘라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리고 선제공격 운운하며 전쟁을 획책하며 꿈꾸는 자들에게 썰기를 박아야 한다. 얼마나 어렵게 만들고 유지해온 평화와 번영인데, 이 소중한 가치들이 군사 모험주의자들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의 이행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 핵문제도 해결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제 형식 논리에 매달리지 말자. 쉬운 데서 길을 찾자. 평화는 총구나 외교 문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만남과 대화를 통해 서로 신뢰를 가지고 평화를 '과정'으로 인식 해 꾸준히 노력할 때 진정한 '평화 만들기'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우리 모두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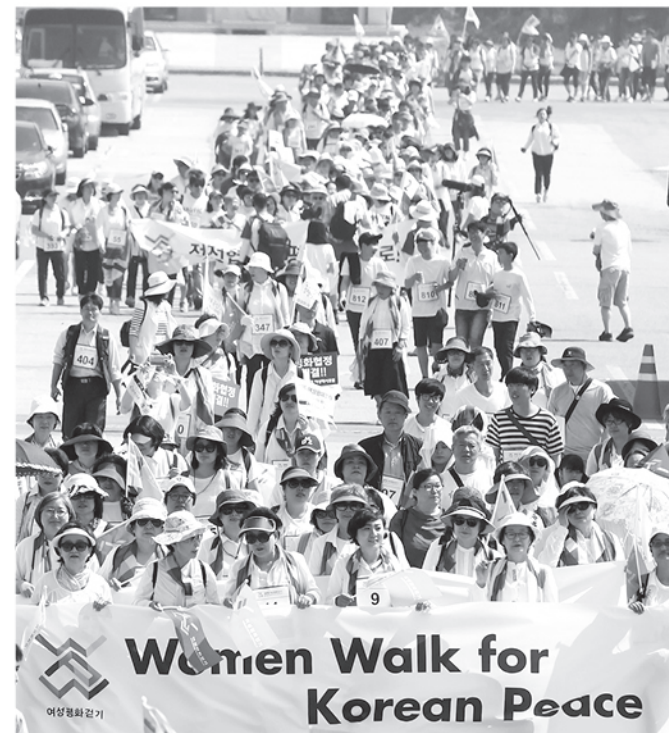
# 전쟁이 사라지는 날까지 평화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다

**편집실**

'전쟁 없는 한반도'와 '생명·평화·상생의 한반도'를 한 마음으로 염원하는 여성들의 평화걷기가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지난 5월 28일(토)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일대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9시부터 낮 12시30분까지 진행된 여성평화걷기에는 한국의 분단 1, 2, 3, 4세대 여성들과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해외 여성운동가 등이 참가했다.

지난해 육로로 군사분계선을 넘었던 미국 육군대령 출신의 평화운동가 앤 라이트(Ann Wright), 국제NGO단체 '피스보트'의 메리 조이스(Meri Joyce), 일본 여성국제평화자유연맹 고즈에 아키야시(Kozue Akibayashi), 최애영 전 뉴욕가정상담소 이사장 등 해외 여성들도 시민들과 함께 걸었다.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여성들의 평화걷기

이번 행사를 공동주관한 경기지역 12개 회원YWCA는 물론이고 멀리 대구YWCA와 청주YWCA에서도 걷기에 동참했다. 오전부터 시작된 참가자 등록 부스 앞에는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나온 아이들이 눈길을 끌었고, 지역 중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참가자들을 안내했다.

평화의 열림, 평화걷기, 평화의 어울림의 순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 참여한 1천여 명의 시민들은 준비운동으로 몸을 풀고 6km에 달하는 파주 민간인통제선 내 생태탐방로와 평화누리길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나무그늘 하나 없는 민간인 통


제구역을 걸으며 일부 참가자는 가쁜 숨을 몰아쉬기도 했지만, 중간중간 쉬어가며 다른 참가자들과 이곳에 오게 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걷기를 마친 참가자들은 평화누리공원으로 다시 모였다. 분단 1, 2, 3, 4세대 시민대표단이 낭독하는 선언문으로 평화의 어울림 순서가 이어졌다. 청년 시민대표단으로 참가한 손지수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회장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화해의 물꼬를 트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대표단은 선언문에서 “평화는 오직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 무력으로, 혹은 궁핍한 이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방식으로는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다”면서 ▲평화협정을 통해 한반도 영구 평화의 초석을 다질 것 ▲한반도와 세계 모든 평화구축 과정에서 여성 리더십을 확대할 것 등을 다짐했다.

여성과 소녀들에게 가해지는 전시폭력과 성폭력에 반대하는 원 빌리언 라이징(One Billion Rising) 플래시몹도 펼쳐졌다. 세계적인 여성폭력 방지 캠페인 ‘빌리언 라이징’은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면서 여성폭력 반대에 동참하는 뜻으로 한국에서는 이날 처음 선보였다. 무대 위 공연자들이 한국 오방색을 상징하는 천을 들고 참가자들 사이로 내려왔고, 아리랑 노래에 맞춰 1천여 명이 어우러진 ‘통일 플래시몹’으로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이 땅에서 전쟁의 위협이 영원히 사라지는 그날까지 평화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평화의 길에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남과 북의 모든 여성과 남성, 전 세계의 정의로운 시민들이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

평화를 갈망하는 여성들의 호소가 오방색 물결을 타고 퍼져나가며 이날 행사는 마무리됐다. 

### “한반도 평화통일은 세계 평화의 핵심”

[인터뷰] 미국 평화운동가 앤 라이트

“한반도 평화통일은 세계 평화의 핵심이다. 이것이 모든 세계 시민들이 한반도 평화를 바라고 꿈꾸는 이유다.”

2016 여성평화걷기가 열린 5월 28일(토)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두 시간 동안 파주 민간인통계선 내 생태탐방로와 평화누리길을 걷고 돌아오는 앤 라이트(Ann Wright) 씨를 만났다.

28도의 햇볕이 내리쬐는 가운데 6km의 걷기가 힘겨워 보였지만 앤 라이트 씨는 밝은 미소로 참가자들을 격려하며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여성 평화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앤 라이트 씨

는 미국 육군에서 현역과 주방위군으로 30년간 복무했다.

유엔 소말리아평화유지군 사령관 참모로서 미군과 소말리아 군벌의 전투에 참전했고, 2001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 아프가니스탄 주재 미공관 차석으로 미국 대사관 재개설을 주도했다.

#### ■ 군인에서 평화운동가로

몽골 주재 미 대사관 부대사 시절엔 미국의 이라크 공습 하루 전날인 2003년 3월 19일 콜린 파월 국무장관 앞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없이 아랍 무슬림 국가를 침략, 정복하는 것은 국제법 위

반임을 피력하며 사직서를 냈다.

그날 이후 평화운동가의 길을 걷고 있는 그녀는 이라크전쟁에 반대하는 시위로 수차례 체포당한 바 있다.

인터뷰할 장소를 찾고 있었는데 “어서 무대 쪽으로

가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함께 즐기고 싶다고 재촉해 무대가 보이는 천막 쪽에 자리를 잡았다.

- 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참가하는데 소감이 어떤가.

“올해도 참가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기쁘다. 이번 걷기와 심포지엄을 주관하고 실행한 모든 단체에게 감사인사를 드린다.”

- 올해는 DMZ를 걸었고, 지난해엔 북에서 남으로 걸어 내려왔는데 그때 심정이 궁금하다.

“지난해 평양과 개성을 처음으로 걸었던 경험은 가히 감동적이었다. 그리고 남쪽 임진각으로 걸어 내려오니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반겨주어 그것 또한 큰 감동이었다. 지난해 Women Cross DMZ에 참가했던 세계 여성 평화운동가들은 아직 까지도 그 날의 감동을 잊지 못한다.”

- 세계 여성 평화운동가들이 자기 나라도 아닌 먼 한국까지 와서 걷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갖고 있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한 갈망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 이슈가 전 세계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 역시 관심이 많다.”



세계 참가자들과 함께 웃고 있는 앤 라이트(오른쪽에서 세 번째)

-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여성들은 군사문제나 안보정책을 잘 모른다는 편견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평화에 관심이 많은 여성을 만났다.

“군사와 안보문제에서 여성의 참여는 내가 40년 동안 살아온 삶 자체라고 생각한다. 오늘 이 곳에 참가한 여성만 해도 수천 명이다. 이들은 자신의 안전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안보문제에 관심이 큰 여성들이다. 여성들은 평화걷기를 통해 세계의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도 한반도 평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외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반도가 아직까지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현실은 우리 모두가 세계 곳곳의 다양한 ‘분열’(divisions)을 멈추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우리는 언젠가 다가올 남과 북의 사람들이 함께할 날을 다 같이 소망해야 한다.”

- 한반도 평화통일은 어떻게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한반도 평화통일은 세계 평화의 핵심이다. 전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는 데 분명히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 희생자에서 변화주도자로 나서는 세계 여성들 -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 결의안 중심으로

편집실

“여성 없이 화해 없고, 여성 없이 평화 없다.”  
“전쟁과 분쟁에서 여성은 더 이상 피해자(victim)가 아니다. 대결과 분단을 종식하는 평화운동가(Peace maker)이자 변화주도자(Change maker)로서 역할자(Player)가 되고 있다.”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더 나아가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위한 여성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2016 여성평화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같이 외쳤다. 여성평화외교포럼,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가 지난 5월 24일(화)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공동주최한 심포지엄에는 150여명이 참여했다.

## UNSCR 1325 중심으로 여성참여 확대 모색

한국YWCA연합회가 만든 평화영상 상영으로 시작한 이날 행사는 이현숙 대한적십자사 전 부총재가 ‘여성, 3.0평화시대를 열다 : UNSCR 1325를 중심으로’이란 제목의 기조연설을 하면서 본격적인 발표로 이어졌다. UNSCR 1325(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on Women, Peace and Security)는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를 일컫는다.

이 전 부총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지만, 외면하기엔 너무 막강한 그대”라는 표현으로 UNSCR 1325가 국제사회와 외교협상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포지엄 주제로 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유엔 안보리는 세계 곳곳의 분쟁지역에서 전시 성폭력 문제가 잇따르자 2000년 여성권리 결의안 UNSCR 1325를 채택했다. 그 요지는 ▲보호 : 분쟁지역이나 분쟁시 성폭력과 젠더폭력으로부터 여성, 여아 인권보호 ▲참여 : 분쟁예방과 평화과정의 모든 의사결정에 여성역할과 참여 확대 ▲예방 : 가해자의 법적 책임과 법 집행을 강화해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젠더 : 평화유지 활동에 여성참여 확대와 젠더관점 주류화이다.

유엔안보리는 결의안 1325 이행을 촉진하고 여성평화안보의제 기구를 감독하기 위해 일곱 번에 걸쳐 후속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안보리 역사상 혁명과 같은 변화로 여성들의 치열한 투쟁과 부단한



‘통일 아리랑’ 플래시몹을 하는 참가자들

외교노력의 결과라고 이 전 부총재는 평가했다. 한국도 45개 여성단체가 1325네트워크 조직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도 2014년 1325이행 국가행동계획을 세웠다.

## 여성평화 지도력, 한반도 핵문제도 풀 수 있다

이 전 부총재는 이런 국제사회 변화가 반영된 사례로 2015년 7월 타결된 이란 핵협상 과정, 주요 국가에서 여성지도자의 진출 등을 들었다. 여성들이 고위직을 맡았던 이란 핵협상은 기존 남성이 주도했던 협상과 달리 구체적, 실용적 협상으로 14년간 묵혔던 과제를 해결했다. 이 전 부총재는 현재 한국 여성평화운동의 핵심 이슈로 남북화해와 통일, 전시 성폭력 근절, 군사주의를 들면서 지금은 3.0평화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회여성 주축의 원폭피해여성 구호와 반전반핵운동을 펼쳤던 1.0시대(1970~1980년대)를 지나 남북여성교류와 일본군 위안부, 기지촌 여성 이슈를 대응했던 2.0시대(1990~2000년대)를 거쳐 평화안보분야 여성참여와 국제사회 여성외교활동을 중심으로 한 3.0시대(2010년대)를 맞았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의 종전, 핵문제, 군 위안부 등 일본 과거사 청산

을 위한 협상무대에 여성들이 어떻게 참여해 여성의제를 이뤄낼 것인가가 주요 과제라고 이 전 부총재는 강조했다.

이 전 부총재는 이런 맥락에서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하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핵없는 세계를 주창한 지도자로서 책임 있는 노력을 할 것, 히로시마 원폭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밝힐 것을 세계 여성의 이름으로 요구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 여성들의 참여로 한반도 평화와 북한 핵협상 문제 타결을 이뤄내자고 강조했다.

기조연설 후 주제발표는 화해와 평화과정의 리더십(장필화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소장, 강화경 하자작업장학교 청년과정), 위장하는 군사주의(김엘리 평화연구활동가, 최정민 두레방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탈핵의 길 생명의 길(앤 라이트 미국 여성평화활동가,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유엔안보리결의안(고즈에 아키바야시 일본 여성국제평화자유연맹 회장,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식탁에서 평화협정 테이블까지(최영실 성공회대 명예교수,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대표)의 순으로 진행됐다.

# 남녀임금 격차 해소는 모두를 위한 이득

대한민국의 남녀임금 격차는 36.6%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대한민국 여성은 남성보다 95일을 더 일해야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

###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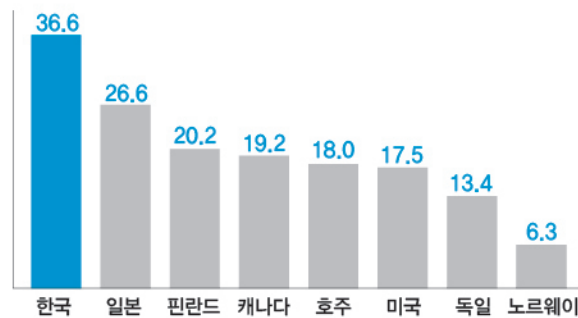
한국YWCA연합회를 비롯한 9개 여성·청년단체는 고용평등주간(5월 마지막 주)을 맞아 우리나라 남녀임금 격차 해소를 목표로 전국 각지에서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촉구하는 정책 토론회를 열고, 사회 공감대를 이루기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 남녀임금 격차 36.6%

한국의 남녀임금 격차는 36.6%에 이른다. 우리나라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95일을 더 일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이며, OECD 국가 평균 15.6%의 두 배 이상이다.

2013년 국회의장 자문기구 여성아동미래비전자문위원회는 여성주간에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포함한 여성분야 7대 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강창희 국회의장은 '동일임금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남녀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남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대한 사회 인식 제고의 계기를 마련했다.

2014년부터 YWCA를 비롯한 여성·청년단체들은 이같은 남녀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위한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관련 법제도 확립과 대중인식 제고를 위한 세미나, 토론회, 캠페인 등을 열었다.



1	아이슬란드
2	노르웨이
3	핀란드
4	스웨덴
5	아일랜드
6	르완다
...	...
91	중국
108	인도
...	...
115	한국

### 동일임금, 성평등 사회를 향한 시작

5월 23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는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 원장이 '유럽 동일임금의 날, 무엇을 이루었나'를, 차인순 국회 입법심의회관이 '한국 동일임금의 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유영선 전문직여성한국연맹 회장,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김미진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사무총장, 김정화 국민사랑의회 사무총장, 장경태 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정책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명혜 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성 평등한 사회를 누릴 수 있도록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촉구했다.

김은경 원장은 발제에서 "여성단체들과 관련 기구가 해당 부처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연대해야 한다. 특히 더 많은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이 불균형의 상태를 문제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정의소비자성평등위원회 베라 주로바(Vera Jourova) 위원장의 메시지를 인용해 "남녀임금 격차는 정의롭지 못하고, 정당화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임금격차는 모든 사람의 문제이다. 또한 임금 격차 해소는 모두를 위한 이득"이라고 밝혔다.

원영희 연합회 부회장은 토론에서 "동일임금의 날 제정은 성평등 사회를 향한 지렛대"라며 "비록 '만능열쇠'는 아니더라도 동일임금의 날 제정이 하나의 '지렛대'를 쫓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5월 23일(월) 제천을 시작으로 28일(토)까지 거제, 마산, 대구, 창원, 대전, 춘천, 전주, 청주, 여수, 진주, 서울, 목포, 인천 등 전국 14개 회원YWCA는 거점 지역에서 남녀임금 격차의 심각한 현실을 알리는 거리 캠페인을 펼쳤다. 동일임금의 날을 상징하는 빨간 가방을 매고 거리를 행진하며, 동일임금의 날을 상징하는 배지와 홍보 전단지들을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캠페인 의미를 설명했다.



# 희생은 인정했으나 사죄하지는 않았다 - 한국인 원폭피해자와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

강제숙 합천평화복지회 운영위원

## 히로시마로 떠난 한국인 원폭피해자

“히로시마로 가야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국인 원폭피해자도 사죄 받아야지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언론보도가 나오자 심진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장은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보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10명의 히로시마 방문단이 꾸려졌다. 이들은 5월 26일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 정부의 한국인 원폭피해자에 대한 인정, 조사,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히로시마로 떠났다.

그러나 방문단은 오사카 간사이공항에서 3시간 억류되었다. 심진태 지부장은 과도한 세관검색까지 당했다. 그는 “3시간 부당하게 갇혀도 분통이 터졌는데, 우리 부모들은 수년간 히로시마에서 얼마나 기막힌 세월을 사셨는지 실감이 났다”고 심정을 밝혔다. 부당한 억류로 예정했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추모의식은 결국 다음날로 미뤄졌다.

## 마져 부르지 못한 ‘고향의 봄’

5월 27일 히로시마 평화공원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낭독으로 추모의식을 시작했다. 이어 수많은 내외신 기자들에 둘러싸여 기자회견을 했다. 원폭피해자 3세로서 장애를 갖고 힘겹게 살고 있는 아들의 사진을 든 한정순 한국원폭2세환우회 명예회장은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날부터 시작된 전쟁은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이 잔인한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 모습을 보고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합니다”라고 외쳐 깊은 울림을 남겼다.

방문단은 히로시마 시청 기자실로 이동해 지역언론사와 다시 기자회견을 했고, 히로시마 세계평화기념 성당 추모비 앞에서 현화와 추모의식을 한 뒤 한국 방송사 특파원들에게 또다시 기자회견을 했다. 오후에 히로시마 평화공원으로 이동했다. 정문으로 접근할 수 없어 건너편 평화탑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켓팅을 했다.



목포YWCA 목포로데오거리



서울YWCA 서울 명동



여수YWCA 각종 국민은행 사거리



인천YWCA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전주YWCA 전주 여성이력개발센터 앞



전북YWCA 전북권시문화회관 광장



전주YWCA 대안동 차없는 거리



창원YWCA 창원여성사거리



청주YWCA 청주 성안길



현천YWCA 현천 명동

드디어 오후 5시 27분 오바마 대통령이 평화공원에 도착했다. 그러나 방일단은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고, 생중계 방송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과 행보를 알 수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인 원폭희생자 존재는 인정했지만 사죄하지는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 일행이 떠나자마자 평화공원에 둘러쳐진 봉쇄망은 순식간에 해제되어 방문단은 다시 평화공원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방문단은 눈물을 흘리며 ‘고향의 봄’ 노래를 불렀으나 목이 메어 마저 다 부르지 못했다.

### 일본범죄 확실히 하지 않은 애매한 행보

“우리는 귀하가 히로시마를 방문하면 먼저 아무런 죄도 없이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로 인한 강제징용과 피폭이라는 이중, 삼중의 고통 속에서 죽어간 한국인 원폭피해자 위령비를 찾아 사죄할 것을 요구합니다”로 시작하는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원의 편지는 직접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해지지는 못했다. 방문단은 우편으로 편지를 보내기로 했다.

히로시마를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10만명이 넘는 일본인 남성과 여성, 어린이들, 그리고 수천의 한국인과 미국인 포로 등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라고 밝혔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수천의 한국인’으로 한국인 원폭희생자들을 공식 인정했다는 점은 평가할 일이지만, 전쟁 피해자인 한국인 원폭희생자의 위령비를 찾아 사죄하지 않은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은 일제강점기 식민 지배와 강제동원, 차별 등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에게 원폭투하의 책임에

대해 사죄하지 않고 가해자인 일본의 전쟁범죄를 확실히 하지 않은 애매한 행보였다. ‘역사적’이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은 미국의 대 아시아 전략이고 미일 동맹의 과시임을 많은 이들은 이미 알고 있다.


### 핵이 있는 한 결코 평화는 없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역대 정부 중 미군의 ‘핵무기 현대화’에 가장 많이 예산을 지출하고, 아베정권 역시 평화헌법을 무시하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반핵과 평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2009년 체코 프라하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주창한 ‘핵 없는 세계’와 히로시마 평화공원 방명록에 남긴 ‘전쟁의 고통을 아는 우리, 핵없는 세상 함께 만든다’를 진정으로 실현하고 싶다면,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실현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은 역사의 증언자로서 ‘핵이 있는 한 결코 평화는 없다’고 온몸으로 증언하고 있다. 더구나 대를 이어서 2세, 3세, 심지어는 4세까지 대물림의 고통을 당하고 있음은 더욱 알려지지 않았다.

원폭피해자 문제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아픈 2세를 포함한 후세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소수자 인권문제이고 탈핵운동으로 이어져야 할 현재진행형이다.

올해는 히로시마와 원자폭탄 피해 71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30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5주년을 맞이한다. 앞으로도 이 땅의 남과 북 어느 쪽도, 일본을 포함한 지구촌 어떤 지역에도 핵으로 인한 방사능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기 위해 전쟁 없는 세상과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경계를 넘어 만나며 세계 각국, 각계각층의 노력과 실천이 계속되어야 한다. 

## 17세 Y-틴 ‘일본군 위안부 사죄 촉구’ 세계 시민들의 마음을 울리다

편집실



발표하는 이예지 Y-틴 전국협의회 회장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이미 평화롭지 않은 이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는다면 할머니들은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일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다시 한 번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합의에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사과가 우선이라면서 청소년의 목소리로 한반도 평화의 필요성을 역설한 17세 여고생의 연설이 유엔NGO

컨퍼런스에 참석한 세계 시민들의 마음을 잔잔하게 울렸다.

### 최연소 청소년 발표자 Y-틴의 평화 이야기

그 주인공은 이번 컨퍼런스 최연소 청소년 발표자인 이예지 Y-틴 전국협의회 회장으로 안양 평촌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다. 이 회장은 5월 31일(화) 유엔NGO컨퍼런스 YWCA 워크숍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노력과 발걸음 : WomenCrossDMZ(여성평화걷기)’에서 한국 발표자로 무대에 섰다.

이 회장은 이날 5,000여 명의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있는 Y-틴을 대표해 ‘똑같은 역사, 반복하실 겁니까’라는 제목의 영어 발표를 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근본 해결이야말로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길이며,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Y-틴 전국협의회는 ‘일본군 위안부’를 올해 중점운동 주제로 정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한 적도, 차별을 경험한 적도 없다”는 이예지 회장은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로서 자신들이 느끼는 평화 이야기를 차분하게 발표했다. “차별 없이 아픔은 감싸주고, 함께 울어주며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게 평화”라는 것이다.

이어 “전쟁으로 포로가 되고, 성폭력을 당하는 다른 나라의 여성과 아동의 모습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겪었던 고통을 그대로 겪고 있다”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모른 척 지나간다면, 오늘날 일어나는 끔찍한 상황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 평화는 온전한 평화가 아닐 것”이라며 문제해결에 세계 시민들이 동참해줄 것을 호소해 큰 박수를 받았다.

### ▶ 한반도 평화 위해 걷는 여성운동가의 제안

여성평화운동가 앤 라이트(Ann Wright) 전 미국 육군대령은 ‘여성과 군사주의’를 주제로 발표했다. 지난해 북에서 남으로 한반도를 종단해 DMZ를 건넌 앤 라이트는 올해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성평화걷기(WomenCrossDMZ)’에 참가했다. 그는 한반도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세계 시민들과 공유하고,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세계 여성들이 연대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미국 군사주의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전쟁과 분쟁으로 희생된 여성들과 아이들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이 순간에도 문을 열고 나가면 폭력의

위험을 마주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여성들이 분쟁을 종식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고희원 작사·작곡가가 노래 안에서 남북이 만나도록 하기 위해 만든 음반 ‘하나의 코리아-더 아름다운 세계’를 소개했다. 그동안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작사·작곡한 노래가 25곡인데, 이번 음반에 15곡을 담았다. 그는 내년에 ‘하나의 코리아’ 2집을 낼 계획이라면서 25곡으로 ‘통일 뮤지컬’을 만들고, 남과 북이 만나 ‘하나의 코리아’를 부르는 게 꿈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노력과 발걸음’은 지난 5월 30일(월)부터 6월 1일(수)까지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6차 유엔NGO컨퍼런스의 세계 YWCA 워크숍이다. 이를 주관한 한국YWCA연합회는 세계 시민사회에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와 관련해 YWCA 평화통일운동을 소개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등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 ▶ 청소년이 살아있는 YWCA, 외국인들 “틴에이지 최고”

#### -반기문 사무총장 ‘일본군 위안부 사죄 촉구’ 서명


유엔NGO컨퍼런스 현장을 빛낸 주역으로 Y-틴 청소년 회원들을 빼놓을 수 없다.

이번 행사에서 대전, 순천, 울산, 청주, 충주 Y-틴 30여명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기 위한 홍보부스를 직접 운영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세계 1억인 서명운동을 펼쳐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전체 69개 전시부스 중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주관한 유일한 활동이다.

500여명의 내·외국인이 서명에 참여했으며, 개막식

에 참석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홍보부스를 찾아 직접 서명에 동참했다.

청소년들의 뜻있는 활동에 일본군 위안부 역사의 아픔을 갖고 있는 중국,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 참가자는 물론이고 유럽, 아프리카 지역 참가자들도 큰 지지를 보였다.

청소년들이 역사문제에 적극 나선 것도 주목받았다. 외국인들은 “Teenager Great!!”를 연호하며 청소년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냈다. 

## “똑같은 역사 반복하실 겁니까” Y-틴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서명운동’ 현장



# 돌보미들이 주인인 협동조합 함께 만드는 '돌봄 정의'

지난해 7월 부천YWCA에 이어 성남YWCA도 5월 19일(목) '돌봄과살림협동조합'을 창립했다. 한 곳을 보고, 한 마음으로 활짝 웃고 있는 이들에게 붙여진 또 하나의 이름은 성남YWCA 돌봄과살림협동조합 '조합원'이다.

### 홍성에 성남YWCA 간사

변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변화를 불편하게 여겼던 이들이 지난 3년 반 동안 무수한 선택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발적 조직인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한국YWCA연합회는 YWCA 운동과 사업을 조화롭게 운용할 수 있도록 돌봄 회원들이 당사자 조직을 활성화 하는 돌봄협동조합 모델을 제시해왔다. 2013년 부천YWCA와 함께 성남YWCA가 협동조합 시범 회원 YWCA로 선정되었다.

### 1호 부천YWCA의 길잡이

지난해 YWCA 돌봄과살림협동조합 1호를 설립한 부천YWCA의 성과는 실로 의미가 크다. 설립 매뉴얼을 만들고, 활동가를 육성하고, 교육 커리큘럼을 만드는 등 시범 사업모델을 완성했다. 함께 출발했지만 성남YWCA가 제2호로서 결실을 맺을 수 있던 것도 1호의 견인이 큰 역할을 했다.

무료 직업소개사업으로 알선해주는 방식에 익숙해 있던 돌보미 회원들에게 기존 조직을 '협동조합형'으로 바꾸고 마음과 뜻을 모으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 서로 마음과 힘을 모아 하나가 되는 것, 즉 '협동'과 '조합형 조직 만들기'라는 큰 그림으로 준비했다.

부천YWCA와 마찬가지로 돌보미를 조합원으로, 자치회 임원을 법인 임원으로, 실무자를 활동가로, 그리고 YWCA 내부에서 결단 등 넘어야 할 난제가 많았지만,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방향을 찾을 때 '함께'의 힘이 막강함을 느끼고 경험했다.

매월 진행되는 돌보미 교육은 듣고 싶은 강의 주제와 가보고 싶은 여행지를 해마다 설문조사하고 이를 교육에 반영해 참석 회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단계별 협동조합 교육과 직무교육을 통해 돌보미뿐 아니라 기관이 함께 소통하며 성장하게 되었다.

### 그만 공부하고 빨리 만듭시다

협동조합 조직을 만드는데 중요한 영역은 돌봄 임원회 부분이었다. '어떻게 하면 회원이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참여하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임원들을 어떻게 굳건히 세워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고민도 과제였다.

2013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조직정비는 출석률을 높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수회원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했다. 2014년에는 그간 발굴한 우수회원 중에서 후보자를 올려 직접선거로 각 직종별 임원회(회장, 부회장, 총무)를 구성하였다.



부천YWCA에 이어 성남YWCA에서도 돌봄과살림협동조합을 창립했다.

2015년 상반기에는 협동조합 출범을 선포했고, 같은 해 3월부터 돌봄 임원회와 YWCA 이사과 실무자를 포함한 15명이 협동조합 공부모임을 시작하였다. 협동조합의 기초 이론과 우리가 어떤 조직으로 갈 것인지 따지고 검토했다.

'왜 가야 하는가?', '어떤 걸 만들고 싶은가?', '협동조합을 만들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등에 대해 치열하게 질문하며 공부했다. 긴 시간을 함께 공부하고 준비하다 보니 "이제 그만 공부하고 빨리 만듭시다"라고 말하는 돌봄 회원도 생겨났다.

창립총회 이후 설립신고와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까지 마치면 이제 실전이다.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그동안 배운 대로 조금씩 적용하며 조합원 모두가 함께 적응하는 기간이다.

YWCA가 소망하는 '돌봄으로 정의 세상'을 만들기 위한 소원을 성남YWCA에게 주셨고, 지금까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처럼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앞으로의 나아감도 이끄실 것이기에 힘차게 협동조합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기도와 물질로 적극 지원해준 연합회와 앞서 길을 내준 부천YWCA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한줄 인터뷰 "더 나은 돌봄 사회를 위하여"

"꿈이 없어서 꿈꾸는 것이 불편했던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일깨우고, '내 서비스를 받는 이웃'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합원들의 뜻을 모으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조합이 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배화수 살림돌보미 회장, 협동조합 이사장)

"돌보미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사용인들과의 인격적 관계를 기대하면서 조합원들 스스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신금옥 아기돌보미, 조합원)

"함께 준비한 동료들이 협동조합 주체인 조합원이 되어 창립총회를 하게 되니, 가슴 벅차게 기쁩니다. 3년간 공부하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조합원이 되겠습니다."(장영숙 산모돌보미 회장, 협동조합 이사)

"우리 협동조합이 돌봄 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큰 역할을 하기 바랍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열심히 돕겠습니다."(박은경 성남YWCA 회장)

## 한발 뜰에 세워진 상록수, 생명사랑 70년

대전YWCA가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해 지난 4월 6일(수)에는 70주년 감사예배를 진행했다. 이어 6월 9일(목)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창립 70주년 기념식과 후원음악회를 열었다.

### 이다정 대전YWCA 간사

대전지역 여성들을 위한 희망의 터전을 다지며 1946년 4월 10일 창립한 대전YWCA는 올해로 70주년을 맞았다. 생명사랑을 향한 70년.

1945년 광복 후 사회 혼란 속에서 고통 받는 여성과 아이들이 생겨났고, 그때 5명의 여성들이 생명사랑을 위한 조용한 행진을 시작했다. 이듬해 대전YWCA를 결성해 야학을 열고 여성들을 위한 문맹퇴치 운동부터 벌였다. 1948년 대전여고, 호수돈여고에서 첫 Y틴 클럽을 만들었고, 문화체험과 리더십 교육, 상담실 운영 등 청소년문화를 선도했다.

### 5명 여성의 조용한 시작

한국전쟁을 겪으며 전란구호 활동에 뛰어들어 돌봄과 치유를 통해 희망을 전했다. 1963년 인혜학원 설립으로 첫 직업의식 교육인 버스여차장 교육을 실시해 7년간 2,0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지역 최초 여성 직업교육의 문을 연 것이다. 이러한 직업교육은 여성이 사회 책임감을 지닌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게 하였다.

1964년 소비자특별 연구모임 구성 등 소비자보호 운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했고, 1991년 '공명선거실천 시민운동협의회'를 발족해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에도 나섰다. 1990년대 '아나바다 운동'으로 불붙은 환경운동은 이제 탈핵운동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5명의 여성들이 모여서 시작된 대전YWCA는 성장에 성장을 거듭해 지금은 7,500여명의 회원공동체가 되었다. 가난, 혼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꿈을 놓지 않고 지지와 돌봄, 나눔과 치유, 생명과 희망의 길을 걸어왔다.

### 정의와 평화, 생명에 대한 존중

대전YWCA는 6월 9일(목) 오후 3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창립 70주년 기념식 및 후원음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생명·평화, 꿈을 부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국YWCA연합회를 비롯해 전국 회원 YWCA, 대전시민, 회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해 대전YWCA '생명사랑 70년'의 감동을 나누고 축하하였다.

청소년 회원들이 'I have a dream'을 부르며 무대에 등장했고, "삼각산 맑은 샘에 자라난 우리들~"로 이어지는 YWCA 회가를 부르자 청중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유덕순 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한 기념식은 '대전YWCA 생명사랑 70년의 역사'가 담긴 영상 상영으로 이어졌다. 어려운 시대 시대마다 애쓰고 성장해 온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나누었다.

YWCA 100년을 향한 기도는 세대를 대표한 6명 회원(어린이Y회원, Y틴협의회장, 대학Y협의회장, 결혼이주여성, 중경회장, 이사)의 낭독으로 진행되었다.

김정민 대전YWCA 회장은 "70년간 함께 해주신 여

러분들의 참여와 헌신 그리고 사랑을 밑바탕으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 생명을 존중하며 자연과 공존하는 세상,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힘차게 달려가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대전YWCA 70년 길을 밝히는데 기여한 회원들이 공로패를 받았다.

### 원로의 발걸음과 돌봄 회원의 수줍은 떨림

권선택 대전광역시장, 김인식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설동호 대전광역시 교육감은 창립 70주년을 축하하며 대전YWCA의 성장과 발전을 기원했다. 이어 대전YWCA,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청소년회원을 후원해온 지역업체 씨크릿우먼(대표 김영휴), 라이온 캠프(대표 박희원), 백화점 세이 임직원과 가족사원, 중도법무법인(변호사 송진운), 대전둔산로타리클럽, 창문인쇄(대표 윤여도)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마지막으로 대전YWCA 70년 길을 밝히는데 기여한 회원들이 무대에 올랐다. 35년 이상 이사와 위원으로 헌신한 김신옥(50년), 임국이(42년), 남경자(42년), 이은주(39년), 김덕점(38년), 이순덕(38년), 신동숙(38년), 사영희(37년), 윤진순(35년)을 비롯해 26년 실무로 헌신한 김공자 전 사무총장이 공로패를 받았다. 1961년부터 대전YWCA와 인연을 맺고 이사, 위원, 회장 등을 역임한 김신옥 중경회장이 고령에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며 단상에 오르자 박수가 쏟아졌다. 최근까지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전날 기운을 회복해 기념식에 올 수 있었다는 사회자 설명에 숙연한 감동이

전해졌다.

30년 이상 돌봄회원으로 가사서비스 현장을 지켜 온 오명숙(34년), 한영애(32년), 곽윤산(30년)회원의 공로패 수상은 큰 갈채를 받았다. 세 돌봄회원은 많은 사람들 앞에 선 긴장감과 공로패의 감격을 수줍은 떨림과 눈물로 전했다.

후원음악회는 초청가수 노사연과 1,000여명의 청중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당일 새벽 시부상으로 남편 이무송씨가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대전YWCA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자라도 달려왔다는 사연부터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이라는 가사까지 몽클함을 자아냈다. 이웃의 삶을 살피고, 사회에 봉사하는 YWCA 활동을 응원해왔다는 그의 노래에서 함께 삶의 깊이를 느꼈다.

생명사랑 70년 역사를 돌아보고 100년을 바라보면서 대전YWCA가 정의와 평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힘을 갖고 지역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운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날 행사는 마무리됐다.

# “30만 가사노동자도 직업인이자 노동자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가사서비스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30만명에 이르는 가사노동자들이 노동권 확보와 인권보호를 위한 법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가사노동자들은 가사관리, 산후관리, 가정교육, 환자간병, 노인요양, 장애인 활동보조 등에서 필수적인 돌봄서비스를 맡고 있다.

### 편집실

대표적인 가사노동자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는 6월 16일(목)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제노동기구 가사노동자협약 비준 및 가사노동자 인권과 노동권보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가사노동자에게는 노동권을, 국민에게는 양질의 돌봄을!”

이날은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 100차 총회에서 가사노동자도 다른 노동자와 동등하게 권리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이 채택된 날이다. 국제가사노동자네트워크, 국제노총, 국제식품연맹은 다음해 ILO 총회에서 6월 16일을 ‘국제노동자의 날’로 선포했다.

국제가사노동자연맹(IDWF)은 이날 연대서한을 통해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가사노동자가 포함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ILO협약에 명시된 가사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 주휴와 휴일 보장, 사회보장, 직업상의 안전과 건강 등 가사노동자도 다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밝혔다. IDWF에는 현재 47개 국가에서 50만 가사노동자를 조

직한 59개 가사노동자 회원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가사관리사, 가정교육사, 산후관리사를 대표하는 회원들의 현장발언과 성명 낭독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30만 가사노동자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또한 성명서 낭독을 통해 20대 국회와 정부에 가사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제정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ILO 가사노동자 일자리협약 비준 ▲가사노동자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돌봄서비스 확충계획 수립가 비영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육성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70여 명의 가사노동자들이 ‘공정한 일터, 공정한 노동’ 플래카드가 담긴 박을 터뜨리는 퍼포먼스를 벌이며 권리실현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

현재 가사노동자 일자리협약을 비준한 나라는 독일, 스위스, 벨기에, 핀란드, 아일랜드, 필리핀, 아르헨티나, 칠레 등 22개국에 달한다. 반면, 한국 가사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로 60여 년간 법적 보호에서 배제되어 왔다.

10년을 일해도 20년을 일해도 퇴직금은커녕 노후

를 준비할 국민연금마저 없다. 산재보험, 건강보험, 실업급여 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며 부당해고나 임금체불에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휴일이나 휴식도 공식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가사노동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가사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과 ILO협약 비준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2015년 정부는 가사노동 특별법안 연내발의를 발표했으나 노동개혁 추진이라는 명목 아래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한편, 한국YWCA는 전국 21개 지역(거제, 광양, 남



가사노동자들이 노동권과 인권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원, 부천, 대구, 대전, 마산, 목포, 서울, 성남, 수원, 안양, 울산, 익산, 제천, 진주, 천안, 청주, 춘천, 평택, 군산직할지부)에서 회원YWCA 주관으로 6월 한 달간 가사노동자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 “가사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60년이 지난 지금도 가사노동자는 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 가사노동자는 실업급여도, 퇴직금도, 국민연금도 받을 수 없다. 남들 다 실 수 있는 연차도, 여름휴가도 없다. 이제 더 이상 망부석처럼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 가사노동자들을 보호하는 특별법을 만들어가자.” (이진심 가사관리사,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회원)

“베이비시터로 일하고 있는데 아이를 안고, 업고 하다 보니 어깨와 팔이 아파 매일같이 병원에 드나든다. 전국에서 일하는 베이비시터들이 몸이 아파도 병원비 걱정에 병원을 가지 못한다. 우리 가사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 산업재해와 고용보험에 대한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희망

한다.” (백정옥 가정교육사,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회원, 행복한돌봄협동조합 이사장)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산모돌봄미를 10년 넘게 해 오고 있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담당하게 일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돌봄미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가사노동자에 대한 인식과 법률은 1950년대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 가사노동자도 노동자이다. 오늘 우리는 하루 일당을 포기하고 정부종합청사가 있는 광화문 광장에서 절박한 우리들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왔다. 정부와 국회는 가사노동자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고, 법 개정을 조속히 할 것을 촉구한다.” (김숙환 산후관리사, 부천YWCA 돌봄과살림협동조합 이사장)

# “땀을 흘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2016년 '원로에게 듣는다'는 회원YWCA 원로 선배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코너다. 이번 호에서는 박춘자 목포YWCA 명예이사를 김은숙 목포YWCA 사무총장이 6월 15일(목) 만나서 50여 년의 활동 이야기를 들었다.



### 박춘자 목포YWCA 명예이사 약력

- 1968~2015 목포YWCA 합창단원
- 1973~현재 목포YWCA 이사
- 1987~1998 목포YWCA 부회장
- 1991~1993 목포여전도회연합회 회장
- 1999~2002 목포YWCA 회장
- 2008 제35회 YWCA 전국대회 30년 봉사상
- 2007 목포YWCA 30년 봉사상
- 2012~ 목포YWCA 명예이사 추대
- 2015 목포YWCA 40년 봉사상

**김은숙 :** 오늘 귀한 걸음해준 박춘자 명예이사께 감사드립니다. 1968년 합창단원으로 목포YWCA에서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첫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요.

**박춘자 :**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부터 찬양을 좋아해서 성가대로 오랫동안 활동했어요. 당시 20대 젊은이들이 모여 목포 시내에 합창단을 만들자고 의기투합하게 되었지요.

단원들 중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 초교파적으로 모였는데, 매주 모이다보니 신앙을 갖게 되어 지금은 권사, 장로가 된 분들이 많아요. 목포YWCA 합창단은 연합회 창립 60주년 예배 때도, 지난해 평화콘서트에서도 공연해 자랑스럽습니다.

**김은숙 :** YWCA 안에서, 교회공동체와 지역사회 안에서 어떤 신앙을 갖고 실천해오셨는지요?

**박춘자 :** 세계는 YWCA 목적문과 회가가 크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목적문을 그대로 실천하는 YWCA 활동에 감동을 받았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는 말씀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활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목포 YWCA는 서로 도와주고, 직원들을 정말 사랑하는 이사와 위원들이 있어 감격할 때가 많고 감사한 부분이지요.

**김은숙 :** 많은 분들이 회장님을 ‘몸으로 봉사하는 분’, ‘친절하고 따뜻한 분’으로 말씀했어요. 50여 년 활동하면서 가장 보람되고, 기억에 남았던 활동은 어떤 것이었는지요?

**박춘자 :**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니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그래요. 많은 추억이 있지만 서울 연합회에서 팔도 바자회를 했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해요. 각 지역 특산물을 서울로 갖고 올라가서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사랑의 나눔을 실천했지요. 사업부 위원장을 하던 시절 돌미역, 돌김, 쥐포 세 가지를 백만 원어치 갖고 올라가서 팔고 그랬어요. 그저 할 줄 아는 것이 몸으로 봉사하는 것이었으니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제가 회장으로 있던 때부터는 각 지역에서 바자회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도 목포YWCA는 바자회 수익금을 장학금으로 사용합니다. 민들레 장학금, 김영순장학금, 박춘자장학금을 포함해 전액을 도움이 필요한 목포시 30여개 기관에 지원하고 13개 학교 Y-틴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직원과 자녀들의 학비보조, 지역 목회자 자녀들을 돕는데 쓰고 있어요.

70년대는 진도 농촌마을에 배 타고, 버스 타고 들어가서 1일 탁아소 활동을 했어요. 농사일로 바쁜 부모를 대신해 아이들에게 간식도 주고 하루 종일 놀아주었지요. 당시 탁아소가 발전해 지금의 목포YWCA 어린이집이 되었으니 감격스럽고 보람을 느낍니다.

**김은숙 :** 오늘 인터뷰 하는 코너 이름이 ‘원로에게 듣는다’라는 제목인데요. 회장님께서 YWCA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오셨을 텐데요. YWCA 안에서 본받고 싶은 지도력은 어떤 분이셨는지, 독자들에게도 소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춘자 :** 연합회에 가면 직접 과자를 구워주던 박예스터 선생님, 또 박순양 총무님과 중경회장님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광주YWCA 조아라 선생님도 정말 행



2008년 추석맞이 송편나눔 행사에서 Y-틴 회원들과 송편을 만들고 있다.

함으로 보이셨어요.

특히 김갑현 연합회 중경회장님은 바자회를 하러 가면 지역에서 온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건네주고 꼭 빵을 사주시던 기억이 나요. 우리 재정이 어렵던 시절 컴퓨터를 지원해주고, 학교 의자를 배송비까지 부담하면서 보내주어 목포YWCA에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목포YWCA에서는 곽은순 중경회장님을 비롯해 초기에 많은 분들이 정말 애를 많이 쓰셨고, 회관건축 등 지금의 목포YWCA가 있기까지 기초를 다듬어 주셨지요.

**김은숙 :** 지역사회에서도 10여 년간 극동방송 어머니기도회 활동을 하면서 기도의 단을 쌓아오셨는데요. 한국YWCA를 위해서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요?

**박춘자 :** 매주 월요일마다 목포지역 여성들이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한국YWCA가 세계 120개 회원국을 이끄는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또한 다음 세대들을 위한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외로운 사람인데 YWCA 안에서 귀한 선배들을 만나 많은 것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작은 씨앗을 길러내서 큰 열매를 맺는 일에 모두가 열심히 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 부산YWCA 햇빛모아발전소 1호 건립

성인심 부산YWCA 사무총장

고리원전 1호기 폐쇄 결정을 이끌어낸 YWCA 탈핵생명 운동이 지역에너지 전환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공급 위주에서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으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YWCA는 핵발전 대안으로 지역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시해왔다. 그 첫 번째 결실을 올해 부산에서 맺게 됐다. 부산YWCA는 5월 24일(화)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부산환경공단 체육공원에서 제1호 햇빛모아발전소 기공식을 열었다.

‘바람과 태양으로 탈핵 세상을 열겠다’는 YWCA 목표가 시민들이 만드는 태양광발전소 건립까지 이른 것이다. 핵발전 의존에서 벗어나 지역 스스로 햇빛 재생에너지를 자체로 생산, 소비하는 에너지 전환기반을 갖추는데 큰 의미를 갖는다.

## 지역에너지 전환에 나서다

이번 ‘햇빛모아 발전소’는 시민단체, 공기업, 지방단체가 힘을 모은 지역사회 협력 사업으로 추진됐다. 그래서 시민태양광발전소로 불린다. 부산환경공단은 수영하수처리장 내 300㎡ 부지를 제공했고, 부산시는 인·허가 행정을 도왔다. 부산YWCA가 시민기금 5천만원을 모금했고, (주)한국남부발전이 1억원을 기부해 1억 5천만원의 공사비를 마련했다. (주)한국남부발전은 태양광사업 절차도 지원한다.

7월 5일 완공될 시민태양광발전소는 솔라 패널 160개로 하루 평균 3시간 30분 동안 햇빛을 받아 50kW 전기를 생산한다. 여기서 생산된 전기는 한국전력에 판매되며, 유지보수 비용을 제외하고 매년 1000만원 가량의 수익금이 예상된다.

시민태양광발전소 운영과 관리는 부산YWCA가 맡는다. 수익금 전액은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과 에너지 교육 등에 사용한다. 부산YWCA는 1호 ‘햇빛모아 발전소’ 건립 이후에도 성금을 추가로 모아 시민들이 세우는 태양광발전소를 확대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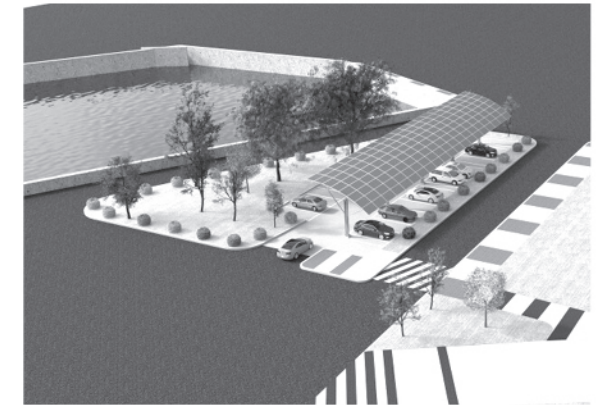
‘플라워 버킷 챌린지’ 퍼포먼스

부산YWCA는 시민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4월부터 인터넷 모금사이트 소셜펀치(<http://www.socialfunch.org/sunsmile>)에서 온라인 모금을 진행했다. 6월 초까지 755만원이 모였다. 기공식 당일에도 오프라인 모금을 위한 ‘햇빛모아 카페’를 운영하고, 장미꽃잎을 뒤집어쓰고 기부금을 내는 ‘플라워 버킷 챌린지’ 퍼포먼스도 벌였다. 첫 주자로 서병수 부산시장이 장미꽃잎을 뒤집어썼다.

## 부산YWCA · 부산시 · 남부발전 · 부산환경공단 협력

하선규 부산YWCA 회장은 “지방단체와 지역 공기업, 우리 시민단체가 힘을 합해서 햇빛모아발전소 기공식을 갖게 되었다”면서 “태양광과 바람, 물 같은 자연이 무한한 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명혜 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햇빛과 시민의 염원을 모아 건강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햇빛모아 발전소가 지금은 하나로 시작하지만 건강한 발전을 이루어내어 두 개, 세 개 요소요소에 자리잡아 앞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의 좋은 모델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부산YWCA 햇빛모아발전소 조감도

이날 기공식에는 이명혜 연합회 회장, 하선규 부산YWCA 회장, 서병수 부산시장, 이종원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문혁주 KNN 사장, 이근탁 (주)한국남부발전 전무 등을 비롯해 부산YWCA 회원, 부산시 관계자, 부산환경공단 임직원, 한국남부발전 임직원들이 참석해 햇빛모아 발전소 건립을 축하했다. 부산YWCA 햇빛모아발전소 준공식은 부산YWCA 창립 70주년 기념예배, 기념식과 함께 7월 5일(화) 열릴 예정이다.

한국YWCA 전국 회원단체 중에서 가장 먼저 탈핵운동을 시작한 부산YWCA는 지난 2011년 3월 일어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본격적으로 탈핵운동에 뛰어들었다. 그해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와 ‘핵없는세상을 위한 부산기독교시민연대’를 주도하며 부산지역 탈핵운동에 앞장섰다.

YWCA는 2013년 탈핵운동을 중점운동으로 채택하고, 전국 52개 회원YWCA가 매주 화요일마다 노후 핵발전소 폐쇄와 신규 핵발전소 건설반대를 외치며 ‘탈핵 불의날 캠페인’을 벌여오고 있다. 2015년에는 ‘고리 1호기 폐쇄를 위한 10만 서명운동’으로 정부의 폐쇄결정을 이끌어냈다. 이후 탈핵 에너지 정책 마련과 지역 에너지 자립을 위한 캠페인,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 거제대Y 동아리 시작을 위한 발걸음

배유미 한국YWCA연합회 간사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가 6년 만에 재건되면서 YWCA 청년운동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은 가운데 올해 첫 신생 대학·청년Y 동아리 결성을 위한 발걸음이 시작되었다.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는 전국 회원YWCA에 가입한 청년들의 전국조직으로 2001년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가 지난 1월 활동을 재개했다.

5월 31일(화)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거제대학교에서는 'YWCA와 거제대학교 학생들의 새로운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거제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YWCA 설명회와 간담회가 잇따라 열렸다.

이 자리에는 거제대학교(총장 전영기) 양승주 학생처장, 거제YWCA(회장 김복례) 김의향 사무총장과 실무자, 마산YWCA 실무자, 한국YWCA연합회 실무자가 함께 했으며 거제대학교 간호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과 학생 24명이 참석했다. 남자 학생은 사회복지학과에서 4명이 참여했다.

### YWCA와 거제대학교 학생들의 새로운 만남

먼저 한국YWCA연합회와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거제YWCA의 활동이 소개됐다. 이어 학생들과 간담회 참석동기, 거제대Y 동아리 구성에 대한 기대, 참여소감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YWCA에 대해 처음 들어 보았는데, YWCA가 우리 사회에서 뜻있는 활동을 하는 단체이자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위상 있는 단체임을 알게 되었다면서 YWCA를 통해 다양한 경험과 교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거제YWCA와 함께하고 싶은 거제대Y 동아리 활동으로는 다문화 가정이나 경제적 취약 계층의 아동들을 위한 교육봉사,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과 서포터즈 활동,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활동 등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오현숙 연합회 회원Y 협력관은 "봉사활동만 생각한다면 YWCA라는 큰 그림을 보기 어려울 수 있다. 청년으로서 YWCA 안에서 청년성도 고민하고, 대안을



거제YWCA와 거제대학교 협약식

생각해보고, 실천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오랫동안 경남대 대학·청년Y 활동을 지원했던 이래 마산YWCA 부장은 "봉사 자체도 중요하지만, 봉사 활동을 하기에 앞서 그 활동을 이해하고 훈련받는 것도 중요하다"며 사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의향 거제YWCA 사무총장은 "거제YWCA는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각계각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함으로써 청년 지도자로서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뿐 아니라 사회로 눈을 돌려 본다면 더 큰 시각을 가져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YWCA 활동을 통해 스스로가 성장하는 기회를 꼭 갖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거제YWCA는 거제시 근로자가족복지관, 거제YWCA 어린이집, 모오리돌 작은도서관, 거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부속시설을 비롯해 신바람노인복지대학, 지역아동센터, 거제시 재활용센터, 돌봄서비스 무료직업소개소,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의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간담회가 끝날 무렵 학생들에게 거제대Y 동아리가

구성될 경우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절반에 가까운 11명의 학생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대부분 거제 대학·청년Y 회원으로 가입하기로 하였다. 참여를 보류하거나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학생들은 학과 공부로 인한 시간제약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종교적 차이나 개인 상황 등을 말한 학생들도 있었다.

### 2017년 정식 동아리 구성 목표

거제대Y 동아리 참여를 결정한 학생들은 기말고사가 끝나는 6월 중순 다시 한 번 모여 가을학기 활동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학생들과 거제YWCA는 오는 가을학기부터 거제대Y 동아리 설립을 위한 준비와 활동계획 수립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2017년에는 거제대학교에 정식 동아리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거제대학교와 거제YWCA는 지난 5월 24일(화) 거제대학교 총장실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확인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대학YWCA 활동과 전문지도력 연계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복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 자리에서 거제YWCA와 거제대학교는 ▲봉사활동 연계를 위한 협조 ▲상호홍보, 정보공유 등 다각적인 사업(전공)분야 협조 ▲실습지도 연계 ▲공동 온·프라인 홍보 등 상호호혜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사항에 대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한국YWCA연합회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회장 손지수)에는 6월 기준으로 19개 회원YWCA에서 500여명의 대학청년Y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중 대학 캠퍼스에 대학·청년Y 동아리가 결성되어 있는 학교는 이화여대, 숭의여대, 한양대, 순천대, 전남대 여수캠퍼스, 경남대, 울산대 등 7개이다. 📢

# 진정한 사랑이 기적을 낳는다

## - 영화 <드롭박스>와 <미라클 프롬 헤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정한 사랑과 그 사랑이 기적임을 이야기하는 주목할 만한 기독교 영화 두 편을 소개한다.

### 편집실

지난 5월 10일(화)부터 15일(일)까지 열린 제13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그동안 보편적 사랑의 가치와 더불어 아가페적 사랑을 담아내는 영화를 소개해왔다.

올해는 고유 섹션인 '아가페 초이스'를 통해 약자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는 영화들을 소개했다. 프랑스에서 두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이민자 어머니가 이국의 문화와 관습 속에서 살아가는 딸들에게 보내는 애절한 러브레터 <파티마>부터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영화 속 인물을 통해 관객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질문을 던지는 <더 퍼스트, 더 라스트>까지 다양한 작품이 소개됐다.

'미션 초이스'는 기독교적 가치와 복음의 비전을 담은 국내외 기독교 영화들을 다루었다. 고(故) 장기려 박사의 희생적인 삶을 다룬 <끝나지 않은 사랑의 기적, 장기려>는 이 섹션의 유일한 다큐멘터리로 소개됐다.

올해는 <우드론>, <캡티브>와 같이 신앙을 통해 물리적·환경적 한계를 극복한 실화를 영화화한 작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우리에게 켄드릭 형제 감독의 2006년 영화 <믿음의 승부>로 먼저 알려진 실화를 다룬 <우드론>은 유서 깊은 흑백 갈등을 갖고 있는 우드론 고교 미식 축구팀 최초 흑인 러닝백으로 활약한 토니가 인종 갈등으로 인한 상처를 신앙으로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홀로 아이를 키우며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려는 여성과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도망쳐버린 남성의 이야기를 다룬 <캡티브>는 미국 애틀란타에서 2005년 있던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이번 영화제의 개막작으로 선정된 영화 <드롭박스>와 폐막작 <미라클 프롬 헤븐>은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영화 <드롭박스>는 미국 50개 주 870여 개 극장에서 상영돼 독립 다큐멘터리로서는 이례적 행보로 화제를 모았다. 제9회 샌안토니오기독교독립영화제 대상, 제5회 저스티스 영화제 '가장 정의로운 영화상' 수상, 제24회 허틀랜드 영화제 공식 초청 등을 받으며 작품성 또한 인정받았다. 🍿

### 드롭박스 The Drop Box



감독 브라이언 아이비(Brian Ivey)  
97분, 미국 · 한국, 2015년

#### 즐거리

서울 관악구 난곡동 주사랑공동체교회 이종락 목사는 지난 2009년 베이비박스를 만들었다. 버려진 아기들을 위한 작은 상자는 지금까지 800여 명의 목숨을 살린 생명 상자이다. 이 목사는 장애가 있는 친아들을 키우며 베이비박스로 만난 아이 열다섯 명과 함께 살아간다.

#### 추천 이유

이종락 목사와 그의 아내는 버려진 아기가 제때 발견되지 못해 목숨을 잃는 것을 막기 위해 베이비박스를 만든다. 예상보다 더 많은 아기가 베이비박스에 들어오면서 그의 사역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고, 양육을 포기한 수많은 부모의 사연들을 뒤로한 채 아이들은 작은 박스에서 새롭게 태어난다.

이목사 부부의 헌신과 사랑은 아이들에게 고루 흘러가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달된다. 브라이언 아이비 감독도 그중 한 사람으로, 영화 제작 중 이목사의 믿음을 따라 신앙을 갖게 이른다.

<드롭박스>와 또 다른 축을 이루는 감독의 사연은 모든 생명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진심을 전한다. 젊은 시절 이종락 목사가 지금의 사역을 맡기까지, 또 열다섯 명의 아이를 맡아 키르기까지 과정을 돌아보면 까닭 없이 거저 받은 생명과 그 생명의 기쁨을 다시 나누는 아름다운 순환이 있다.

베이비박스에는 생명 보호와 유기 조장이라는 두 가지 논란이 존재하지만, 누구도 '생명'이라는 고결한 가치를 논란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심윤정 프로그래머)

### 미라클 프롬 헤븐 Miracles from Heaven



감독 패트리시아 리건(Patricia Riggen)  
109분, 미국, 2016년

#### 즐거리

한 가족의 실화를 담은 영화이다. 사랑하는 남편, 세 딸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던 크리스티. 둘째 딸 애나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리면서 절망에 빠진다. 병원에서는 치료를 포기했지만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엄마 크리스티는 딸의 치료를 위해 고군분투한다.

#### 추천 이유

기독교 영화에서 기적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고려해본다면 <미라클 프롬 헤븐>이 기적을 다루는 방식은 주목할 만하다. 크리스티 빔의 동명의 베스트셀러를 영화화한 이 작품은 애나 빔의 불치병으로 인한 한 가정의 위기를 다룬다.

크리스티는 영화의 말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이 영화는 그러한 기적의 디테일을 성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애나가 모네의 그림을 보는 순간이나 우연히 만난 흑인 웨이트리스를 통해 위로를 얻는 것, 그리고 한 간호사와 항공사 직원의 호의, 이런 모든 게 합쳐져 애나의 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애나의 병이 기적으로 치유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에서도 감독은 어떤 효과도 주지 않고 그 장면을 하나의 일상적인 순간으로만 처리하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기적을 설득력 있게 만든다.

마지막 기적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이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게 관객의 몰입을 유도한다. 이 작품은 좋은 기독교 영화의 한 모범으로 남을 것이다. (한상훈 프로그래머)

**6월 월례 아침 기도회**

2016년 6월 YWCA 월례 아침 기도회가 6월 2일(목) 오전 9시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이숙진 이화여대 초빙교수가 '탐욕이 다수결인 시대'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0장 17절과 신명기 5장 21절의 말씀을 전했다. 한국전쟁의 아픔을 기억하고 평화통일운동을 위해 기도하며 특히,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의 길이 빨리 열리기를 기도했다. 또한 8월 23일부터 열리는 YWCA 전국회원대회를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했다. (자세한 내용은 5쪽에)



**발전차역지원제도 입법청원 서명 1만명 육박**

발전차역지원제도(FTI) 입법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이 매주 화요일 서울 명동 연합회 회관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108차는 서울YWCA가 주관했으며,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이 탈핵임을 알리고 대안으로서 재생에너지 정책전환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6월 10일까지 연합회와 회원YWCA가 모은 발전차역지원제도 입법청원을 위한 서명은 1만여 명에 이른다.



**NCS 가사지원분야 학습모듈 개발사업 모임**

NCS 학습모듈사업 오리엔테이션이 5월 2일(월) 오후 3시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1차 모임에서는 지난해 개발한 가사지

원분야NCS를 기반으로 교육·훈련이 가능한 학습모듈을 개발하는 작업으로 집필방법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어 6월 15일(화)에는 2차 모임인 중간보고회를 통해 집필진, 검토진, 직업능력개발원이 함께 집필자료 초안을 검토하였다. 최종 NCS 학습모듈은 9월말 완성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날' 제정촉구 캠페인과 토론회**

연합회를 비롯한 9개 여성·청년단체는 고용평등주간(5월 마지막 주)을 맞아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우리나라 남녀임금 격차 해소를 목표로 전국 각지에서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촉구하고, 사회 공감대를 이루기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제천을 시작으로 거제, 마산, 대구, 창원, 대전, 춘천, 전주, 청주, 여수, 진주, 서울, 목포, 인천 등 전국 14개 YWCA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함께 거리 캠페인을 펼쳤다. 또한 국회에서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5월 23일(월) 열어 관련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성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다짐했다. (자세한 내용은 14쪽에)

**2016 평화심포지엄, 여성평화걷기**

2016 여성평화심포지엄이 5월 24일(화) 서울 정동에서 '여성, 3.0 평화시대를 열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여성평화외교포럼,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가 공동주최한 심포지엄에는 150여명의 한국 여성들과 미국 평화운동가 앤 라이트, 일본 여성국제평화자유연맹 고즈에 아키바야시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어 5월 28일(토)에는 경기 파주 임진각 생태탐방로와 평화누리길 일부 구간에서 여성평화걷기가 열렸으며, 연합회와 12개 회원YWCA가 참가했다. (자세한 내용은 9쪽에)

**대학Y 동아리 재건을 위한 거제YWCA-거제대 간담회 지원**

연합회는 한양대Y 등 대학Y 동아리 재건을 목표로 회원YWCA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5월 31일(화) 거제YWCA는 거제대학교에서 대학Y 설립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고, 연합회에서 지원을 위해 방문했다. 거제YWCA는 거제대 학생들과 대학Y 설립 준비를 시작해 2017년에 정식 동아리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5월 24일(화) 거제YWCA와 거제대학교는 상호교류협약을 체결했다. (자세한 내용은 32쪽에)

**제66차 유엔NGO컨퍼런스 참여**

유엔 공보부가 주최한 제66차 유엔 NGO컨퍼런스가 5월 30일(월)부터 6월 1일(수)까지 경주에서 열렸다. 100여 개국 2500명의 NGO 대표, 학계,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컨퍼런스에서 연합회는 세계YWCA 워크숍을 주관했다. 워크숍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와 관련해 YWCA 평화통일운동을 소개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등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세계 시민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또한 전국 5개 회원YWCA(대전, 순천, 울산, 청주, 충주)에서 참가한 Y-틴 회원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기 위해 홍보부스를 직접 운영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Y-틴 홍보부스를 방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세계 1억인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자세한 내용은 19쪽에)

**'길위의 평화학교' 제1차 연구모임**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한 상황을 이해하고, YWCA가 나아가야 할 평화·통일운동의 방향과 비전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모임이 열렸다. 제1차 모임은 6월 3일(금) 연합회 강당에서 '한반도 평화 만들기'라는 주제로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강의를 하고,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다. 장미란 연합회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김귀옥, 김주영, 박용옥 위원이 패널로 참가하였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심이 있는 위원들과 실무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자세한 내용은 6쪽에)



**연합회 실행위원 연수**

2016 연합회 실행위원 연수가 6월 9일(목) 연합회 실행위원들과 연합회 국·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세종시를 방문해 세종YWCA와 함께 이준

희 세종시장, 이충재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의 만남을 통해 지방분권의 의미를 나눴다. 이후 대전YWCA로 이동하여 창립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축하인사를 전했다. 특히 회원YWCA의 열정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번 연수는 실행위원들이 직접 비전 나눔과 목적문을 통한 자기성찰 등을 토론했는 워크숍으로 진행됐다. 실천, 성장, 공동체, 리더십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YWCA 실행위원으로서 역할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



**여성주의 평화운동 현장 워크숍**

YWCA 여성주의 평화운동 현장 워크숍이 6월 10일(금) 서울 YWCA 4층 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2015년 '평화'의 해를 맞아 진행된 YWCA 여성주의 평화운동 연구를 기반으로 평화운동 현장에서 회원YWCA 실천사례를 모으고, 이를 활성화할 방안을 찾는 자리로 마련됐다. 고양YWCA, 서울YWCA, 안양YWCA에서 모인 참가자들이 나(여성)의 평화이야기, 나(여성)와 지역의 평화이야기, 나(여성)와 한반도 평화와 세계평화이야기를 주제로 YWCA 평화운동을 토론했다.



**일본 구마모토현 지진 긴급구호 모금 전달**

일본 구마모토현 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구호 모금운동으로 연합회와 31개 회원YWCA(강릉, 거제, 김해, 남양주, 대구, 대전, 동해, 목포, 부산, 사천, 서귀포, 서울, 성남, 속초, 수원, 안동, 양산, 울산, 익산, 제주, 제천, 전주, 진주, 진해, 창원, 천안, 청주, 충주, 통영, 포항, 군산직할지부)가 모금한 기금 14,412,970원을 6월 17일(금) 일본YWCA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일본YWCA가 구호물품으로 긴급요청해 4월에 먼저 전달된 도시락 김까지 포함해 총 1500만원의 성금이 지원됐다. (일본YWCA 감사편지는 39쪽에)

**옥시제품 불매운동**

연합회와 회원YWCA는 가슴기 살균제 사망자의 70% 이상을 발생시킨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 불매운동과 소비자 피해보상 촉구 캠페인을 환경·소비자단체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기자회견과 성명 발표, 홍보, 판매실태 모니터링과 철수 촉구, 판매매장 항의방문과 불매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형할인매장 옥시제품 전면철수와 제조기업 처벌요구 운동도 계속 전개된다. 또한 이번과 같은 반사회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등 제도보완을 적극 촉구할 계획이다. 회원YWCA는 서울, 울산, 의정부, 춘천 등에서 지역별 시민캠페인과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2016 전국회원대회를 위한 '정오기도' 운동**

연합회와 52개 회원YWCA는 8월 23일(화)~24일(수)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1,0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전국회원대회를 위한 정오기도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5월 15일(일)부터 매일 전국회원대회 준비와 각 회원YWCA를 위한 기도제목을 공유하고, 정오에 함께 기도하고 있다. 이번 정오기도는 전국 회원대회 전달까지 계속된다.

**한국YWCA 청년홍보기자단 1기 모집**

소셜미디어 채널(페이스북, 블로그)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YWCA의 운동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과 현장 취재를 담당할 청년홍보기자단을 모집한다. 기자단은 전국 YWCA 운동현장을 취재하여 청년들과 더 많은 시민들에게 YWCA 운동을 알리는 역할을 담당한다. 모집기간은 6월 23일(목)까지이며,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동안 활동하게 된다.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는 한국YWCA 홈페이지(www.ywca.or.kr)에서 다운받아 접수 가능하다.

**동정**

- 이명혜 회장  
연세대 '자랑스러운 여동문상' 수상 (2016.5.28)
- 이경순 위원  
제52회 백상예술대상 심사위원장 선임 (2016.4.8)
- 박은실 중점운동국 국장  
청소년활동 유공자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 (2016.5.12)

**북한어린이돕기 모금현황 (2016. 5. 1~5. 31)**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CMS기부 (2016.5.1~5.31)	강승아, 고세영(청주Y), 고예린, 고은희, 광지영, 구정혜, 국승훈, 권순복, 권인택, 권진, 김가현, 김경숙, 김경희, 김근혜, 김기동, 김명희, 김미경, 김미애, 김병호, 김사라, 김상은, 김수연, 김영자, 김은경, 김일곤, 김재연, 김주영, 김주현, 김진용, 나윤지, 남희숙, 명진숙, 문미란, 문인수, 민선영, 박보람, 박영순, 박용옥, 박은실, 박임희, 박진화, 박호정, 배정미, 백정미, 백혜진, 서명희, 성동숙, 손서경, 송록희, 신인숙, 심은옥, 안정희, 양종원, 엄호정, 오소영, 오시창, 오영란, 오현숙, 원영희, 유도희, 유빈, 유성희, 유수, 윤명선, 윤수정, 윤혜식, 이남희, 이명혜, 이순덕, 이영미, 이영숙, 이윤숙, 이정숙, 이종경, 이주영, 이지은, 이지은, 이천진, 이행자, 이혜련, 이혜진, 임강숙, 임국이, 임진영, 임향옥, 장경자, 장미란, 장선희, 장윤우, 전배자, 전정미, 전하예, 정경란, 정동신, 정순, 조성애, 조영미, 조은영, 진인식, 채정희, 최수산나, 최형선, 하은경, 한영수, 한주경, 한혜경, 함희경, 홍기자, 홍선심, 홍현정, 홍현화, 황홍백	1,728,000
개인 기부	김 미, 김행영, 최혜실	925,660
협력 교회	기쁜소식교회, 약전평강교회, 한양대 여성교회	160,000
기관 및 단체	마포구 신수동 주민센터	43,623
<b>합 계</b>		<b>2,857,283</b>

일본 구마모토YWCA에서 보내온 편지

**지원의 손길 감사합니다**

한국YWCA 여러분들께

이번에 구마모토 대지진을 겪은 저희들에게 많은 양의 지원 물품을 보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지난 5월 7일, 지원 바자를 열어 많은 유학생들과 지진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매일 텔레비전을 통해 지진속보가 전해지고 있을 터이므로 여러분 또한 그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리라 믿지만, 여전히 이곳 구마모토 현지는 엄혹한 상황입니다.

구마모토YWCA는 구마모토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마시키마치에서 북서쪽으로 약 2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지난 4월 14일 밤 경량 철골 구조의 YWCA 건물이 강도 6의 지진으로 크게 흔들려 그 안의 가구들이 쓰러지고 찬장 안의 그릇들이 산산히 깨져버렸습니다. 일단 그 다음날인 15일 파편들을 정리하여 그 다음 주에 있을 리사이클 바자 준비를 한 후 귀가했지만 자정을 넘긴 16일 밤 커다란 본진(本震)이 발생하였습니다. 본진은 14일의 지진보다 훨씬 큰 강도 7이었습니다.

이전에 들어본 적도 없는 크기의 지진이 구마모토를 덮친 것입니다. 땅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듯한 흔들림과 좌우로 크게 요동치는 흔들림이 오래 지속되었고, 이와 동시에 정전, 단수, 도시가스 공급 중단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이 여기저기 흩어지고 우리와 그

릇들이 다 깨져버렸을 뿐더러 냉장고 문마저 열린 채 멈춰버렸습니다. 단단하게 붙어있던 싱크대가 떨어져나가 방안으로 밀려와있기도 했습니다. 벽걸이 시계도 바닥에 떨어지고 벽지도 찢겨져 버렸습니다.

“너무 무서웠어, 엄청 낫어”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또 지진이 오지 않을까 무서워서 바깥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집 안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마모토만이 아니라 오오타, 후쿠오카도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피난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고, 차 안에서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진이 언제 멈출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지진피해 지역 구마모토에서는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늦었지만 한국YWCA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도움에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의 손길을 보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2016년 5월 11일  
구마모토YWCA 회장 에자키 케이코

북부

강릉YWCA

이신애 부장

'애들아 밥먹자' 강일여고 캠페인



청소년 위원회 주관으로 6월 9일(목) '애들아 밥먹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사, 위원과 실무자들이 주먹밥을 만들어 등교하는 강일여고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게 자라길 기대한다.

동해YWCA

안지원 팀장

사랑나눔 장터



5월 24일(화) 코스모스호텔 7층에서 사랑나눔 장터를 진행했다. 동해YWCA의 아홉 번째 행사로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소 '민들레 밥상'과 급성 영양장애로 고통 받는 북한어린이 돕기 기금마련을 위해 열렸다. 이날 모은 정성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자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서울YWCA

성지희 간사

시민건강 걷기축제

2016 시민건강 걷기축제가 '일하는 여성, 건강한 사회, 돌봄

사업 50년'을 주제로 5월 28일(토) 남산공원에서 열렸다. 올해는 특히 서울YWCA 돌봄사업 50주년을 맞아 700여 명의 돌봄회원을 비롯해 1,4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해 풍성함을 더했다. 싱그러운 초록의 기운을 만끽하며 함께한 가족, 친구, 이웃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속초YWCA

정인숙 간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양성교육

2016년 5월 9일(월)부터 17일(화)까지 속초엑스포주제관 세미나실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인 양성교육이 진행되었다. 고려자인재은행 취업향상 과정으로 마련된 이번 교육은 구직의사가 있으나 구직이 어려운 50세 이상 장년층 취업에 도움을 주는 자격증 취득 기회를 주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과정을 수료한 20명의 구직자들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여 인정받으며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인천YWCA

황진아 간사

2016 Y-틴, 대학청년Y 인준식



5월 21일(토) 오후 2시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에서 2016 Y-틴, 대학청년Y 인준식을 열었다. 인천지역 16개 학교 Y-틴, 센터Y-틴, 대학청년Y 등 18개 클럽 350여 명의 학생과 지도교사, 자원지도자가 참석했다. Y의 정체성을 갖고 활동할 것을 다짐한 뒤 5개 클럽에서 준비한 춤, 노래, 공연 발표와 박찬대 국회의원 특강으로 진행됐

다. 인준식을 시작으로 2016년 Y-틴과 대학청년Y는 인천YWCA 회원으로서 다양한 청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춘천YWCA

육여진 간사

옥시제품 불매운동



춘천YWCA는 춘천YMCA, 춘천환경운동연합과 함께 5월 한 달간 옥시제품 불매운동을 벌였다. 5월 3일(화) 춘천 지하상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5월 25일(수) 춘천 명동입구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5월 26일(목) 춘천 이마트 앞에서 시위를 했다. 가슴기 살균제 제조 기업들이 피해자와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검찰이 가슴기 살균제 업체들을 강도 높게 처벌하고, 정부가 원인규명과 피해자 지원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가 가슴기 살균제 피해 특별법 제정과 청문회를 열 때까지 옥시제품 불매운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경기

고양YWCA

남궁혜경 국장

차한 잔의 나눔

돌봄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나눔으로 평화로운 사회를 가꾸는데 필요한 재정마련을 위해 6월 2일(목) 한 '차한 잔의 나눔'을 열었다. 회원과 지역주민, 후원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고양YWCA 합창단 공연과 바이올린 연주로 풍성함을 더했다. 지역 주민들에게 YWCA 중점운동을 소개하고, 퀴즈형식으로 YWCA 활동을 공유했다.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성장하는 고양YWCA가 되기를 기대한다.

남양주YWCA

이정은 간사

단체급식 조리원 양성교육

남양주YWCA 고려자인재은행에서는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으로 단체급식 실무조리원 양성교육을 진행하였다. 20명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직업의식과 윤리교육을 비롯해 이력서 쓰기, 면접기술 등을 교육받았다. 직무훈련 이론과 요리학원 실습도 병행했다. 교육진행 중에 2명이 취업하였고, 수료생들은 일자리 개척 동아리를 만들어 구직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부천YWCA

이지원 간사

부천시와 '워킹맘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협약



부천YWCA 돌봄과살림협동조합이 가사돌보미 파견사업을 하는 지역 사회적 기업과 함께 부천시가 지원하는 '엄마손 프로젝트' 제공기관에 선정되었다. 5월 12일(목) 업무협약에는 김숙환 부천YWCA 돌봄과살림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석했다. '엄마손 프로젝트'는 저소득층 워킹맘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부천시가 해당 가정에 가사돌보미를 파견하는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이다. 가사돌보미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워킹맘에게는 가사서비스 지원을 통해 일하는 여성의 가사노동을 덜어주는 지역 복지사업 모델이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102개 가정을 지원하고, 내년엔 예산과 대상자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수원YWCA

정지영 간사

수원 Y-틴 인준식

2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Y-틴 인준식이 5월 21일(토) 수원시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홍승화 수원YWCA 회장이 Y-틴 회원들을 격려하고, 11개 Y-틴 동아리 인준과 지도교사 9명, 청소년지도자 12명을 임명했다. Y-틴

회원들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김향미 수원평화나비 사무국장 강의를 들었다.



안산YWCA

문성은 간사

청소년 그린에코스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청소년 환경실천 운동으로 '청소년 그린에코스쿨-환경에도 정의가 필요해'를 열었다. 5월 18일(수) 상록중학교 3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먹을거리와 환경 정의를 주제로 기후변화에 따른 먹을거리 문제를 교육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친환경 요리실습으로 감자샐러드 만들기를 진행하였다.

안양YWCA

김순태 간사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하루찾집

5월 24일(화) 스칼라티움 안양 평촌점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하루찾집'이 열렸다. 비 오는 날씨에도 많은 회원과 지역 인사들이 참석해 후원했다. 작은 바자회와 함께 '지역과 함께 하는 평화통일 시민캠페인'을 진행하며 통일을 향한

염원을 나누었다. 이번 하루찾집 수익금은 가정폭력 피해여성 쉼터 확장 기금으로 적립한다. 이 중 10%는 여성들이 만드는 통일씨앗 프로그램 비용으로 지역 조선족 동포여성, 새터민 여성 등 한민족 여성들의 연대프로그램을 위해 사용한다.



의정부YWCA

이미진 간사

옥시제품 없는 도시를 만들자



지역 소비자, 환경시민단체와 함께 5월 18일(수) 의정부시 홈플러스 앞에서 빅3 대형마트(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정부점 옥시레킷벤키저 제품 판매중지와 불매운동을 통한 옥시제품 없는 도시 만들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형마트 옥시제품 판매중지 결의안 발표와 대형마트 지점장 항의방문, 옥시불매 퍼포먼스 등이 진행되었으며 주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전국적인 불매운동 확산에 계속 함께할 예정이다.

중부

논산YWCA

권연정 간사

해피성 성교육 인형극 "내 몸은 소중한요"

논산YWCA 상담소위원회에서는 3~12세 아동 2,000명을 대

상으로 '내 몸은 소중한요' 해피성 성교육 인형극을 진행하고 있다. 4월 19일(화)부터 시작한 찾아가는 성교육 인형극은 지역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에서 지금까지 10회를 공연했으며 1,356명의 아동이 참여하였다. 올해 10월까지 진행되는 해피성 성교육 인형극은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게 구성한 인형극으로 올바른 성 가치관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대전YWCA

김지찬 팀장

여성가장·결혼이민여성 장학금 마련 위한 아나바다 장터



대전YWCA 여성인력개발센터는 5월 18일(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여성가장과 결혼이민여성 장학금 마련을 위한 아나바다 장터를 열었다.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아나바다 행사 수익금으로 여성가장과 결혼이민여성 교육생들에게 해마다 10명 이상 장학금을 수여해왔다. 이날 수익금도 소외되고 어려운 여성인력개발센터 훈련생과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된다.

제천YWCA

김미경 간사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인문학 아카데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인간다움을 회복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나누고자 6월 1일부터 매주 수요일 '인문학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 총 8회에 걸쳐 진행될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역사와 사회배경, 현재 삶에 대한 이야기 등 새로운 시각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천안YWCA

정상란 간사

2016년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5월 24일(화) 천안YWCA가 실시한 '2016년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이 SBS <생방송 모닝와이드>를 통해 26일(목) 아침 전국으로 방송됐다. 이번 교육은 여성가족부와 지방단체가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 지역주민의 폭력예방 파수꾼 역할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충남에서는 천안YWCA가 지역지원기관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는 성폭력 피해사례를 소개하고 대처방법과 성폭력 피해 예방을 알아보는 내용이 방영됐다.

청주YWCA

최지경 간사

즐거운 불편운동 거리캠페인



5월 18일(수) 청주 성안길에서 즐거운 불편운동 거리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환경을 살리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살림운동

에 동참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게시판에 스티커를 붙이고, 가까운 주변에서부터 운동을 확산시키겠다고 다짐하였다. 5월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운동', 6월은 '비닐봉투 줄이기' 등으로 매달 다른 주제로 캠페인이 이어진다.

## 충주YWCA 김세희 간사

### 돌봄과살림 회원 체육대회



5월 21일(토) 충주YWCA 고령자인재은행에서는 돌봄과살림 회원 체육대회를 열었다. 돌봄회원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돌봄과살림 종사자 공동체 의식향상을 위한 미니 체육대회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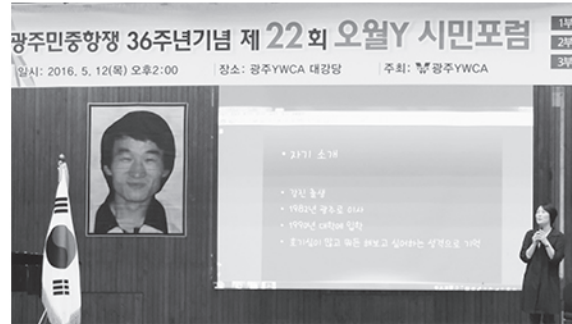
## 서부

### 광주YWCA 손유영 부장

#### 오월Y 시민포럼

5·18민주항쟁 36주년을 맞아 5월 12일(목) 오월Y 시민포럼을 열었다.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포럼은 박용준 열사 추모예배와 장학금 전달, 오월Y 시민포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로 진행되었다. 박용준장학금 전달식에서는 보육시설에서 성장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4명을 뽑아 각 1백만 원씩 장학금을 수여했다. 시민포럼에서는 백희정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표를 초청해 '5·18과 여성의 사회운동'을 주제로 시대변화에 따른 지역 여성운동의 지형변화와 세대를 잇는 여성운동을 모색했다. 5.18민주항쟁 시민군 지도부로부터 활동한 들꽃아학 박용준 열사의 보상금으로 만들어진 박용준장학

금은 1997년부터 보육시설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박용준 열사는 1980년 당시 광주YWCA 신용협동조합 직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들꽃아학에서 강의를 했다.



### 남원YWCA 김미정 간사

#### '밀어야 산다' Y-틴 인준식

4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5월 21일(토) Y-틴 인준식을 진행했다. 서남교회 김우수 전도사가 '밀어야 산다'는 주제로 강연하고, Y-틴 활동을 영상으로 보고한 뒤 Y-틴 임원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회원들은 봉사정신으로 회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선서했다. 앞으로 활성화될 남원Y 청소년운동을 기대해 본다.

### 서귀포YWCA 김수진 간사

#### 평화아카데미 '여성, 평화를 말한다'



6월 8일(수) 서귀포YWCA 회관에서 평화아카데미 제2강좌로 박순향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 교수의 특강을 진행했다. 박 교수는 20여 년의 군현장 경험과 동티모르 파병 1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평화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평화아카데미는 평화전략을 고민하고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7개 강좌가 10월까지 진행된다.

### 여수YWCA 박선주 간사

#### 2016 재외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한마당행사



5월 21일(토) 흥국체육관에서 제9회 세계인의 날을 맞아 '2016 재외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한마당'을 열었다. '희망의 바람!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화합한마당으로 진행되었다. 다문화아동들이 바람개비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명랑운동회를 통해 화합을 다졌다. 특히 '희망의 바람개비' 부스에서는 참석자들이 함께하는 세상을 위한 희망을 적은 바람개비를 만들어보고 성금을 모았다. 이날 모은 성금은 지역 다문화 자녀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전주YWCA 김은진 국장

#### 워킹맘, 워킹 대디의 '도란도란 이야기'



5월 26일(목) 제5회 전북전통문화축제에서 일·가정 양립의 의미를 되새기는 워킹맘, 워킹대디 '도란도란 이야기'를 운영하였다. 사례발표를 통해 워킹맘, 워킹대디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으며, 정신건강 전문의 상담과 일·가정양립 정책에 대한 대안을 들어보는 시간도 가졌다.

### 제주YWCA 이유리 간사

#### 평화아카데미 'IS테러 위협과 시리아 난민사태'

5월 27일(금) 오후 2시 제주YWCA 강당에서 120여 명이 참석

한 가운데 2016년 평화아카데미 제2강 'IS테러 위협과 시리아 난민사태' 특강을 진행했다. 서정민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동아프리카 교수가 강사로 나서 난민의 정의, 역사, 시리아 난민의 규모와 상황, 국제사회 대응, IS 테러배경 등 현재 중동지역과 IS의 상황을 설명했다.



## 동부

### 거제YWCA 홍윤정 팀장

#### '애들이 밥먹자' 경남산업고 캠페인



농협 거제시지부와 함께 17일 경남산업고등학교에서 이른 아침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애들이 밥먹자' 캠페인을 실시했다. 거제YWCA 회원 20여명과 농협 거제시지부 조합원, 하청농협 직원들이 참여해 경남산업고등학교 학생과 인근 하청중학교 학생 등 1,100명에게 우리쌀로 만든 주먹밥, 음료수를 나눠주었다. 거제YWCA는 인스턴트식품과 패스트푸드에 익숙해진 청소년들에게 우리쌀의 이로운 점을 알리고 청소년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해마다 '애들이 밥먹자'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김해YWCA 배정숙 부장

#### 경력단절여성 자연생태지도사 취업연계

5월 23일(월) 자연생태지도사 취업연계를 위한 교육과정을

시작했다. 고용노동부와 김해시 후원으로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올해 9월까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력단절 여성 수료생을 대상으로 취업을 연계해준다. 모집인원 63명 중 30명이 첫 번째 교육과정 수강생으로 선발되었다. 이들은 개강식에서 239시간의 장기 프로그램임에도 학습 열정과 강사와의 팀워크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할 것을 약속하였다.

대구YWCA 배민희 간사

'비우는 행복과 기쁨 베풀기'



5월 30일(토) 대구 두류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비·행·기' 베풀기장이 열렸다. 평소 자신에게는 필요하지 않지만 남에게는 필요한 물건들이 기부된 베풀기장은 대구시민들에게 아나바다 정신이 실현되는 장터였다. 뜻자리 베풀기장으로 판매수익의 10% 이상을 대구YWCA 협력기관인 '착한치과'의 저소득계층을 위한 기금에 전달해 착한 소비의 즐거움까지 베풀어 주는 시간이 되었다.

마산YWCA 이애라 부장

환경의 날 체험부스

제21회 환경의 날을 맞아 6월 3일(금) 경상남도청 서편 잔디광장에서 환경체험 부스를 진행하였다. 경상남도도와 30여개 환경단체들이 민관합동으로 처음 개최한 이날 행사에서 마산YWCA는 펠트 공예로 화장지함 만들기를 선보였다. 휴지를 뽑아 쓸수록 나무가 사라지는 모습을 형상화해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인식을 전환하는데 기여하였다.

부산YWCA 윤영인 간사

행복한 나눔 바자회

6월 7일(화)부터 10일(금)까지 행복한 나눔 바자회가 회원

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국내 유명브랜드 여성화 2,000켤레 기부물품으로 진행된 이번 바자회는 회원과 지역 주민들이 물품구매를 통해 부산YWCA 시민운동에 참여하고, 재정확보에 기여하는 시간이 되었다.

사천YWCA 정희경 간사

주민복지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5월 20일(금) 사천시 주민복지박람회 홍보부스를 운영하였다. EM발효액 만들기와 발효액을 활용한 석고 방향제 만들기 체험, 소비자상담실 홍보, 나트륨 줄이기 OX퀴즈, 아이돌봄 사업 홍보, 가슴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한 옥시제품 불매운동 전개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양산YWCA 박경하 간사

지역여성과 결혼이주여성이 함께하는 멘토-멘티 교육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차이 갈등을 예방하고 한국문화 적응과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여성과 결혼이주여성이 함께하는 멘토-멘티 교육'을 진행했다. 양산향교에서 전통예절과 다도예절을 교육하고, 지역 전통문화 체험인 도자기 만들기과 한지 전통뒤풀어 만들기, 전통문화 역사탐방 등을 함께하면서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 관습과 문화의 이해를 도왔다. 이번 교육은 이주여성들의 외로움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며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울산YWCA 김다혜 간사

울산 시민과 함께하는 옥시불매 캠페인



5월 21일(토) 울산 중구 성남동 젊음의 거리에 위치한 KT무대 앞에서 옥시제품 불매운동 캠페인을 벌였다. 어른 회원과 Y-틴 회원들이 함께한 이번 캠페인은 단순히 불매를 촉구하기 위한 행동이 아닌 옥시가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할 것과 소비자들이 직접 실천해야 함을 일깨우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100여 명의 시민들이 동참해 캠페인 취지를 듣고 행동에 함께할 것을 약속하였다.

진주YWCA 고명정 팀장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경비원 양성과정



5월 25일(수)부터 6월 2일(목)까지 고령자인재은행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으로 '경비원양성과정'이 진행됐다. 경비원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50세 이상 구직자 20명이 참여했다. 경비원 역할과 자세, 경비원의 인권 등 직무훈련을 바탕으로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수료와 함께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는 기회도 부여돼 구직자들이 새 출발을 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진해YWCA 임정희 간사

초록지킴이 환경기재단 교육

다음 세대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의무를 가진 어른들이 지식으로만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청소년 초록지킴이들이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환경기재단 교육을 진행하였다. 무엇을 어떻게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일인지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초록지킴이들이 함께 토론하였다. 또한 스스로 포토폴리오는 만들고 기록하도록 해 자기발전과 진로선택에도 길잡이 역할을 하도록 도왔다.



창원YWCA 정미영 간사

찾아가는 여성인권 이야기

5월 21일(토) 창원YWCA 세미나실에서 이영란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남부센터장을 초청해 '양성평등과 미디어'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청소년들에게 양성평등의 의미와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유니버설디자인, 대중매체 속 양성평등에 관한 이야기를 알기 쉽게 강의하였다. 여성인권의 가치를 알게 되면서 일어난 변화의 바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포항YWCA 황인주 부장

Y-틴, 시각장애인과 행복한 '사랑의 빵' 만들기



Y-틴 봉사단 20여 명이 5월 21일(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은 후 시각장애인들과 일일 제빵사가 되어 슈크림빵, 단팥빵, 소보로빵을 직접 함께 만들어 나누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빵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이 Y-틴과 짝꿍이 되어 함께 빵을 만들고, 어울려 웃고 떠들며 서로 간 편견의 벽을 허무는 시간이 되었다.

6월 · June

일(SUN)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토(SAT)
			<b>1</b> 수원Y 에코투어시티 (~29일) 제천Y 건강돌보미 교육(~3일)	<b>2</b> 고양Y 재정마련을 위한 차한잔의 나눔 제천Y 씽크머니 협약식	<b>3</b> 양산Y 자연사랑 환경 걷기대회	<b>4</b>
<b>5</b>	<b>6</b>	<b>7</b> 안산Y 창립30주년 기념강좌 '여성, 세상을 깨우다' (~28일)	<b>8</b> 울산Y 창립기념일 (1982.6.8) 양산Y 휴공 던지기 행사 전주Y 성인클럽 임원훈련	<b>9</b> 연합회 실행위원 연수 거제Y 탈핵캠페인 (~10일) 대전Y 창립 70주년 기념식 및 후원음악회 서귀포Y 직업훈련교육 전산회계2급+경리 실무과정 개강 의정부Y 일일 후원마당(나눔발상) 포항Y 빅마마 이해정의 "맛깔나는 성공 취업 레시피!"	<b>10</b> 서귀포Y 직업훈련 교육 정리수납전문가&호텔객실관리사 양성과정 개강	<b>11</b> 거제Y 가족과 함께하는 습지탐방대 마산Y 가족습지탐방 프로그램 '김해 화포천 탐사' 제주Y 외국인 근로자 한마음행사 '아주 특별한 제주여행' 진주Y 다래교실 충주Y 양성평등 캠페인 (~15일) 포항Y Y-틴 시각장애인 체험교실 및 자원봉사 기초교육
<b>12</b>	<b>13</b> 남양주Y 의정 지킴이 '디딤돌 학교' 수원Y 전체 실무자 연수(~14일) 울산Y 제34회 창립 기념 및 이사위원 연수 의정부Y 그린에너지 강사 교육(~24일) 인천Y 옥시불매운동 캠페인 포항Y Y-틴 지도교사 간담회	<b>14</b> 속초Y 회원증모 중간평가 여수Y 이사·위원 연수(~15일)	<b>15</b> 직업훈련 담당 실무자 워크숍(~16일) 강릉Y EM매니아 교육 청주Y 3차 산모 신생아건강관리 신규교육(~24일)	<b>16</b> 어린이집 원장 연구모임(~17일) 안산Y 창립 30주년 기념예배 및 기념식	<b>17</b> 고양Y 전체직원 워크숍(~18일)	<b>18</b> 서울Y 서울Y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 (~25일) 여수Y 청소년어울림 마당 '에코그린데이 &아나바다 나눔장터' 전주Y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화합 한마당
<b>19</b>	<b>20</b>	<b>21</b> 제2차 전국사무총장협의회(~23일) 춘천Y 탈핵캠페인	<b>22</b> 북지관 2분기 관장모임	<b>23</b> 진주Y 창립기념일 (1978.6.23) 마산Y 대학Y양성평등 교육 '베리어프리 &양성평등과 미디어' 속초Y 정리수납2급 자격증 취득반 교육 청주Y 제 18회 청주 여성영화제(~24일)	<b>24</b>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시설장 모임 춘천Y 건강돌보미 월례회	<b>25</b> 충주Y 온가족행복 프로그램 '우리가족 헌법만들기'
<b>26</b> 서귀포Y 창립기념일 (1992.6.26)	<b>27</b> 제3차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운영위원회(~28일)	<b>28</b> 인천Y '여성, 평화, 통일' 오픈 강좌 진주Y 창립기념 예배	<b>29</b> 남양주Y 창립 20주년 기념 '나눔의 한마당'	<b>30</b> 지역에너지 전환과 자립을 위한 YWCA 에너지정책 워크숍		



YWCA (사) 한국YWCA연합회